

목차

격려사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격려사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축사	실천여성학의 미래를 열어갈 여러분의 길을 축하합니다	이정구 신부 성공회대학교 총장
축사	실천과 이론을 겸비한 여성 활동가 육성, 9년 - 9기 장학생, 연구 보고 축하합니다. -	김금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내	과정소개 및 경과보고	
보고서	학생보고서	
보고서1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 - 여성주의 시각으로 문제제기 하기	김미경
보고서2	자기 삶의 변화와 마을의 변화 주체로 나서는 여성들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활동경험을 중심으로	김수정
보고서3	동성서사 팬픽을 생산·소비하는 여성주체	김은지
보고서4	주체로서의 여성이 부정되는 미디어 속 여성 재현	백향숙
보고서5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여성주의 주체 논의	원선아
보고서6	91만원 '학원비'와 여성정치 가능성 - 2014년 지방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젠더와 정치에 관한 질문	윤나현
보고서7	수원여성회의 보육운동의 역사 - 평동어린이집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전경숙
보고서8	성주류화정책에서 젠더거버넌스의 의미 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팅 활동 중점으로	정유선
보고서9	계집년들의 퍼포먼스 - OO고등학교 여성혐오발언극복사례	정지영
보고서10	지역 '맘 카페'는 어떻게 세력화 되는가? - <구리남양주 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조은영
보고서11	한국 노동의 역사속에서 여성노동자들 가시화하기	최리주
연락망	9기 명단 및 연락처	
소개	단체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
소개	사업소개	한국여성재단

격려사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이해경 이사장입니다.

먼저, 치열한 현장 활동을 겸하면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년을 무사히, 더 나아가 우수한 학업적 성과를 남기신 활동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전문성과 여성주의 리더십을 갖춘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지난 9년 동안 정치.경제.사회 다방면에 걸쳐 전문지식을 갖춘 여성활동가를 배출하는 국내 최대의 여성학 석사학위 과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벌써 10년차를 맞이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대학-시민사회 삼각연대의 협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굳건한 믿음과 책임감으로 여성리더를 키우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한킴벌리가 있고,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새로운 운동의 미래 비전을 그려낼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성공회대학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른 척, 눈감고 지나쳐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겹겹이 포장되어있어도, 이를 투시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찾아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참으로 귀한 리더들 이십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대안들이 나오리라 기대하며, 또한 향후 여성운동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장기적 비전 수립과 실천방향 확립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기 미래여성NGO 리더십과정을 마치고 연구보고회 자료집을 펴는 여러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유한김벌리, 성공회대학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재단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여성재단 이해경 이사장

실천여성학의 미래를 열어갈 여러분의 길을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대학사회는 커다란 변화 속에 있습니다. 대학 정원 감축과 정부의 평가체제, 시장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대학 교육 이후의 삶의 진로에서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사회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열림, 나눔, 섬김의 정신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천해 온 성공회대학교 역시 이런 조건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 지구적 경쟁체제 안에서 기업도 새로운 환경을 맞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전반의 보수화경향으로 시민사회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시민사회, 기업이 협력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유한김벌리의 미래여성NGO리더십 장학금은 이제 10년을 맞아 100명의 여성리더들을 길러내는 소중한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학지원을 해 주실 (주) 유한 김벌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 실천여성학 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기존의 대학 여성학교육이 지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여성학전공은 미래여성NGO리더십 장학금이라는 기반에 힘입어 여성활동가들을 위한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자 여성학 교육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재단이 보여주신 이 장학 사업에 대한 애정과 노력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공회 대학은 실천여성학전공을 통해 여성운동과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여성리더들을 길러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보여준 새로운 협력모델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더불어 여성활동가들이 따뜻한 우정과 연대를 나누고, 자기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체 내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일하고 공부하며 또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1년 과정을 잘 마치신 수료생 여러분들, 그리고 2년 과정을 마치고 올해 졸업을 앞둔 예비 석사 여러분들, 모두에게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여러분들을 포함해 100명 이상의 많은 여성활동가와 여성리더들이 모여 (주)유한김벌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재단과 협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천여성학의 지속가능한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총장
이정구 신부

실천과 이론을 겸비한 여성 활동가 육성, 9년
- 9기 장학생, 연구 보고 축하합니다. -

2015년은 성평등 담론은 후퇴되고 한국 여성들의 현실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와 SNS 상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다’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페미니스트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성평등 가치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천여성학을 공부하신 9기 장학생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과제를 안고 여성운동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느라 힘든 가운데, 무사히 1년 과정을 수료하고 좋은 연구보고서를 내신 것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 과정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2005년 미래 비전을 수립하면서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 하였습니다. 여성 활동가 리더십 훈련, 여성 활동가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연합의 요구에 기업과 대학교가 응답 하였습니다. 착한 기업인 유한킴벌리가 지원하고 성공회대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수락을 하였으며 여성재단이 파트너가 되어 미래여성NGO리더십 과정이 탄생하였습니다. 기업과 대학교, 여성단체 3자가 주체가 되어 정규 과정으로 여성학 과정을 만들고 장학금을 지원한 모델은 좋은 사례가 되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배출한 88명의 장학생들은 실천에 기초한 연구보고와 논문으로 여성학 학문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 대부분 여성단체와 공익적인 시민단체에 중심적인 활동가로, 훌륭한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 실천적인 이론을 갖춘 활동가로 성장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의 지속

성을 담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 과정은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강화로 갈등과 분열의 우리사회를 소통과 연대로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실천여성학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이론은 9기 장학생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며 함께 공부한 학우들과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는 사회 활동을 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실천과 이론을 접목한 실천여성학 수업은 다른 학교와 차별성이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며, 남은 3학기, 4학기도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년 동안 변함없이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여성을 존중하는 기업 유한김벌리의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허성우 주임교수님과 성공회대학교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학사업의 운영을 잘 해주시는 여성단체의 파트너인 한국여성재단에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여성운동 리더십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2016. 2. 1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정문자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소개 및 경과보고

- '미래여성NGO리더십' 장학사업은 (사)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하여 2007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NGO여성장학사업'으로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과정(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 장학금을 제공하는 과정임
- '미래여성NGO리더십' 장학금은 실천여성학 전공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실천여성학 전공 졸업 후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 in Activism)를 수여함

1.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소개

1) 필요성

- 지속적인 여성활동가 재생산 체계(구조) 마련
- 새로운 가치와 담론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활동가의 인식능력 제고 및 여성주의로 정치·경제·사회를 개혁하는 정책능력 향상
-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성리더십 강화

2) 목적

- 연 10여 명 내외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여성활동가 배출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여성활동가 재교육 체계 마련
- 졸업생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여성운동의 인적역량 강화

2. 세부내용

1) 대상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6개 지부 27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포함) 및
제 여성·시민사회단체 만 3년 이상 활동한 여성활동가

2) 교육기간

2년(4학기) 과정

3) 교육내용 및 교수진(2012년)

구분	교육일정	교육과목 및 교수진
1학기	2012년 2월 26일~6월 13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10시 (총 7시간 / 16주 진행)	페미니즘사상 : 허성우 교수(3학점) 젠더와 정치 : 이진옥 교수 (2학점) 젠더와 경제 : 윤자영 교수 (2학점)
2학기	2012년 8월 29일~12월 12일 오후 12시 15분 ~ 오후 10시 (총 7시간 / 16주 진행)	여성운동 역사와 쟁점: 허성우 교수 (3학점) 여성주의 가족론 : 김순남 교수 (2학점) 페미니스트문화론: 김영옥 교수 (2학점)

3. 경과보고

-2006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부설 여성운동지원센터 논의를 통한 여성운동 지도자 육성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 기획

-2006. 5 여성연합에서 1년 과정(학점인정)으로 여성연합 중견활동가 (3년차 이상)를 위해 이론과 실천을 접목할 수 있는 실천여성학 교육프로그램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 설치 제안

-2006 하반기 성공회대학교의 여성연합 제안 수락 후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 허성우 연구교수, 여성연합 사무처가 실무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교과과정과 운영에 대한 논의 진행

-유한킴벌리 미래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선정되어 미래포럼을 통해 장학금 지원 결정

-2006 하반기에 1년 교과과정안 완성, 실무 논의가 이뤄지고 10월, 제 1기 미래여성 NGO 리더십과정 신입생 모집공고

-2007. 2. 21 여성연합과 성공회대학 협정 체결

-2007. 2. 28 제 1기 1학기 개강(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20분~오후 9시/총 7시간/16주 진행)

-2007. 3. 7 유한킴벌리 1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2007. 9 2008년도 제 2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사업에 대한 유한킴벌리의 장학금이 한국여성재단(이하 여성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되고 여성연합 5명, 여성재단 5명(대상 :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여성활동가)의 선발권을 갖게 됨

-2007. 10. 22 ~ 12. 11 제 2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2008 1. 16 제 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수료식과 수료기념 자료집 발간

-2008 2. 27 제 2기 1학기 개강(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20분 ~ 오후 9시/총 7시간/16주 진행)

-2008. 3. 5 유한킴벌리 2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 2008. 9. 1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담당 허성우 교수 성공회대학교 엔지오대학원 전
임강사 발령(실천여성학과과정 담당)
- 2008. 10. 27 2009년도 제 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모집 및 선발의 모든 진행과
관리를 여성연합이 하기로 결정하고 모집대상은 여성운동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까지
열기로 함
- 2008. 11. 24~2009. 1. 15 제 3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09. 1. 20 제 2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수료식과 기념 자료집 발간
- 2009. 3. 7 제 3기 1학기 개강(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 오후 9시/총 7시간/16
주 진행
- 유한킴벌리 3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 2009. 7. 10~11 1,2,3기 리더십워크숍 (전체기수 네트워크) "우리는 여성주의 리더다"
- 2009. 10. NGO 대학원 내 실천여성학 전공 석사과정으로 독립결정
- 2009. 11. 25 실천여성학 제 1차 콜로키움 "실천여성학 너를 보여줘"
- 2009. 11. 23~2010. 1. 19 제 4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0. 1. 20 제 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수료식과 기념 자료집 발간
- 2010. 3. 6 제 4기 1학기 개강(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 오후 9시/총 7시간/16
주 진행)
- 2010. 3. 13 유한킴벌리 4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 2010. 8. 13~14 1,2,3,4기 리더십워크숍(전체기수 네트워크) "우리는 여성주의 리더다"
- 2010. 11. 30 실천여성학 제 2차 콜로키움 "실천여성학 너를 보여줘"
- 2010. 11.8~12.22 제 5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0. 12. 18 제 4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보고회와 기념 자료집 발간

- 2011. 3. 3 유한킴벌리 5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및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2011. 3. 5 제 5기 1학기 개강(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 오후 9시/총 7시간/ 16주 진행)
- 2011. 8. 27 일본 오사카 부립대학 젠더연구소와 공동워크숍 개최 "한일 양국의 지역 풀뿌리여성운동"
- 2011. 11. 24 실천여성학 제 3차 콜로키움 "실천여성학 한걸음더"
- 2011. 11.9~12.27 제 6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2. 1. 17 제 5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제6기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 2012. 2. 29 유한킴벌리 6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및 추가모집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 2012. 2. 29~6.13 제 6기 1학기 개강(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10시/총 7시간/ 16주 진행)
- 2012. 6. 13 과정 평가회(여성단체연합 참석) 및 교과과정 워크숍 실시
- 2012. 8. 18 실천여성학 네트워킹 파티 모모데이 실시
- 2012. 9. 1 일본 오사카 부립대학 젠더연구소와 공동워크숍 개최(국제 연대 사업) "한일양국에서의 성폭력.성희롱"
- 2012. 8. 29~12.19 제 6기 2학기 개강(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10시/총 7시간/ 16주 진행)
- 2012. 12. 12 과정 평가회(여성단체연합 참석) 및 교과과정 워크숍 실시

- 2012. 11.19~12.28 제 6기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3. 1.14~2.4 제 6기 신입생 추가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3. 2. 5 제 6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 2014. 2. 6. 제7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 2014. 3. 3 1학기 개강
- 2014. 3. 5. 유한킴벌리 8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 2014. 6.18. 1학기 교과과정평가회 및 2학기 교과과정 워크숍 실시
- 2014. 9. 1. 2학기 개강
- 2014.11.05.~11.28 제9기 신입생 수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4.12.17. 2학기 교과과정평가회 실시
- 2014.01.06.~01.30 제9기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4.02.05. 제9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 2015. 3. 2 1학기 개강
- 2015. 3. 4. 유한킴벌리 9기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 2015. 6. 18. 1학기 교과과정 평가회 및 2학기 교과과정 워크숍 실시
- 2015. 9. 1. 2학기 개강
- 2015. 11. 9.~ 12. 9 제10기 신입생 수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5. 12. 17. 2학기 교과과정 평가회 실시
- 2016. 1. 5.~ 1. 29 제10기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선발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6. 2. 1. 제10기 미래여성 NGO 리더십 과정 연구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

김미경

1. 들어가며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인터넷과 함께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 제공의 순기능과 달리, 인터넷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각종 유해한 정보로 인해 건강한 가치관 형성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숙제를 하려다가, 혹은 신문기사를 보려고 인터넷에 접속하였지만, 눈에 들어온 선정적인 광고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클릭하다 직접 음란 동영상 찾게 된다고 말한다.

이뿐 만이 아니라 각종 과장된 다이어트, 성형외과 광고의 범람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몸이 아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불필요한 다이어트와 성형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산부인과와 비뇨기과의 광고는 중년의 남녀가 매일 성적 쾌락만 몰입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한다. 그런데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에 피해 대상은 청소년뿐인가? 성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 선정적 광고의 피해 대상을 청소년에 국한되어 생각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인터넷 선정적 광고의 본질인 모든 시민들에게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적절한 정보제공이나 여성혐오와 성 착취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여성주의 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되었기에 여성주의 시각으로 인터넷 선정적 광고를 재구성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클린인터넷운동을 다시 구성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광고는 왜 선정적일 수밖에 없는가?

인터넷신문도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공정영역과 사적영역의 중간계에 존재한다. 즉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매섭다. 이 비판의 근거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선정성'¹⁾이다.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광고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유지해 나갈 방법이 없다고 변호한다.

우리나라는 종이신문은 물론이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2년 대비 25.6%가 증가한 4,916개다. 이는 등록 정기간행물의 30.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터넷신문 등록과 관련된 통계가 시작된 2005년 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86개에 불과했다(e-나라 지표). 물론 등록된 인터넷신문 모두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봐도 폭발적인 증가다. 언론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현실에서 이 같은 인터넷신문의 폭발적 증가는 치열한 '클릭 전쟁'을 낳았다. 이 전쟁을 통해 콘텐츠 및 광고의 선정성이라는 무기가 등장했다.

특히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이 주목받는 것은 무차별적이라는 데 있다. 인터넷신문의 브랜드, 규모, 성격, 콘텐츠 등에 관계없이 선정성 광고가 게시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터넷신문은 어린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19금 사이트'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규제 의견은 이 같은 현실에서 시작됐다.²⁾

1)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의 '선정성'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광고자율심의규정' 제18조(선정성 등)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광고의 선정성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장면을 묘사하거나, 이를 정당화·희화하는 표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는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에 대한 것이다.

2)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연구원 선임연구원

<표 3-5. 모니터링 대상 선정성 광고의 내용>

	신체 노출 사진·영상	성적유구 자극 문구	성행위 묘사 사진·영상
건	23	10	7
예시	 수술없이 ▶빨 5분 남편이 잠을 안재워!	 하루한번 쏘여주니? 남편이 잠을 안재워!	 수술없이 ▶미른미 남편이 잠을 안재워!

<표 3-7. 성적유구 자극 문구의 예>

'ㅇ 실신' 단어 사용	'홍분' 단어 사용	'XX동영상' 단어 사용
 내미친 ㅇ실신 시간 초간편 ▶성 비법?	 성인녀 ▶홍분시키는 비법? 바로 이것!	 【속보】걸그룹 C양 XX 동영상 "유음"

<표 3-6. 신체 노출 사진·영상의 예>

전신 노출	기슴 노출	둔부 노출
 6kg>4kg ▶미른미! 잠만자고 미얼 -3kg	 집에서 수술없이 ▶미른 C컵 가슴 만들거!	 평생 안빠지던 살 7일 -1kg ▶급속감염!

<표 3-8. 성행위 묘사 사진·영상의 예>

움직이는 형태의 사진	과도한 표정
 수술없이 ▶미른미 남편이 잠을 안재워!	 하루 5분 쏘여주니 남편이 밤마다비명을?

<표1. 박종호, 2013,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인터넷 광고 여성주의 시각으로 다시보기

우선 여성주의 시각이란 개념 정립부터 해야 한다. 여성주의(女性主義, feminism)란 여성 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 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이론이다.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여성운동가 혹은 페미니스트라고 칭하였다. 페미니즘은 계급, 인종, 종족, 능력, 성적 지향, 지리적 위치, 국적 혹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 의제들을 의미한다. '남성 반대'가 아니라 '비차별과 성평등'을 옹호한다. '페미니스트'는 이러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여성주의는 여성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하였다. 여성주의는 다양한 사회 이론과 정치적 움직임 그리고 도덕철학을 포함한다. 사회 운동으로서 여성주의는 인간에 대한 차별의 일환인 성 차별을 종식시키고, 소외된 '여성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관심사'를 대중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가 여성이 처한 최근의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흔히 말한다. 이는 오랜 역사성과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여성은 사회구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비주류 또는 소수로서 주요한 결정을 담당할 권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으로 비유되는 장애물에 막혀 주요 정책결정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보여준다. 낮은 사회적 영향력은 그만큼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제도적인 결정 등에 있어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목소리를 현실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의 방송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남성들의 여성 차별적 발언과 이른바 '김치녀', '된장녀'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현상도 그중의 하나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성에 대한 과잉 문화 현상이다. 유교적 전통 속에 숨겨진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우리나라의 성 개방 풍조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비록 성매매특별법으로 예전과 다르게 은밀한 성매매가 진행되고 이를 단속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풍선효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말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 여자 포르노 스타의 국내 방송 출연이후, 성적 매력이 감추는 것이 아닌 대외 과시용 문화가 확산되면서, 섹시한 매력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여기에서 급격한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 보급으로 인해 무차별적인 포르노와 선정적인 사진, 여성의 특정부위를 상품화하는 성형문화의 발달, 신체이미지의 왜곡으로 인한 과도한 다이어트 강요 등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국민들의 정서도 무뎠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인터넷신문의 선정성 또한 이러한 분위기와 연관되면서 선정적 광고가 더욱 심해져 왔다. 시민단체들의 법 개정 운동으로 인해 조금씩 개선되어 오긴 했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뉴스 등의 인터넷이 제외된 것은 인터넷언론이 갖는 영향력에 따라 표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무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의 반포르노 운동을 전개한 캐더린 맥키넨, 안드레아 드워킨 등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비하하며 성적 종속을 성애화하는 포르노그라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바로 '현실' 그 자체가 된다. 강제와 폭력을 자발적인 섹스와 에로틱한 아름다움으로 묘사하며, 대개 남성의 성적욕망의 충족을 위해 여성이 봉사하고 학대당하는 내용의 것들인 포르노그라피는 현실을 왜곡하고 여성 차별의 관행을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포르노그라피는 직접·간접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초래하고, 집단적으로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묘사함으로써 직장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나 성희롱(성적 괴롭힘)을 야기하게 된다고 한다.

캐서린 맥키넨과 안드레아 드워킨은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 반포르노 조례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포르노에서 ① 여성이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성적대상이나 상품으로 묘사된 경우, ② 여성이 수치나 고통을 즐기는 성적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③ 여성이 강간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 ④ 여성이 묶이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당한 상태에서 성행위의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⑤ 여성이 종속되거나 노예의 모습으로 성적대상으로 묘사된 경우, ⑥ 여성의 신체가 부분화되어 그 부분으로 여성이 축소된 경우, ⑦ 여성이 본래 창녀인 것처럼 묘사된 경우, ⑧ 여성의 성기가 사물이나 동물에 의해 삽입되는 것으로 묘사한 경우 등에 대해 남녀평등 침해로 간주하여 포르노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³⁾

위의 표1에서 보면 인터넷 광고도 포르노그래피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신체를 부분화하며 남녀평등을 침해하는 문구로 가득하다.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새로운 뉴스를 보기위해 억지로 보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왜곡된 성차별적 관행을 나도 모르게 고착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4.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인가? 인터넷 광고 법적규제는 필요한가?

인터넷 선정성 광고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세계인권선언 제 30조에는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되어있다. 또한 “헌법 제 2장 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평등법과 표현의 자유법은 서로 충돌하는 길에 들어서 있다. 자유로운 표현의 보장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나 실질적인 법적 평등의 필요라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되어 버렸다. 평등과 표현 사이의 긴장은 그 두 권리가 각기 서로를 무시한 채 고도로 발달해왔다. ⁴⁾

이에 평등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입장에 따라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기본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비록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3) Catharine McKinnon, , 1996, 포르노에 도전한다, 개마고원, Andrea Dworkin, 유혜련옮김, 1997, 포르노그래피, 동문선

4) Catharine McKinnon, 신은철옮김, 1997, 포르노에 도전한다, 개마고원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가는 중재자나 조정자로서만 등장하는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한다.⁵⁾

다른 광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성 광고에 대한 규제도 '법적규제'와 '자율규제'로 대별한다. 선정적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는 정부기관이 강제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행 법률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표2참조>), 그리고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박종호, 2013. 12). 현실적으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는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시정요구' 형태로 구체화된다.⁶⁾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와 관련된 최근 경향은 '자율규제' 방점이 짝힌다. 사실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언론매체에 가해지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신문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훨씬 더 가깝다. 현재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자율규제는 2012년 12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자율규제는 2011년 12월 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제정하고 선포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2013년 12월 3일 제정하고 선포한 인터넷신문 광고 사업자 공통의 자율규약인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

5) ,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한국언론진흥연구원 선임연구원
6)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모두 110,714건이었다. 이 중 '시정요구'는 모두 104,400건으로, 삭제'가 22,986건, '불법 식·의약품'이 22,204건, '성매매 음란'이 32,330건, '권리침해'가 3,135건,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명의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기타 법령 위반' 10,832건이었고, 이러한 심의결정 이후 여성가족부 고시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은 397건이었다. 한편, 2014년 4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0개 주요 인터넷신문에서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해 현행 법령을 위반한 광고 181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181건은 법정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17건) 등이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약'의 제6조(광고제작 및 표현)도 선정적 광고의 자율규제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13년 5월 1일 인터넷신문 48개, 5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 심의를 시작했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터넷신문위원회 내 '인터넷신문광고심의분과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인터넷신문 광고 모니터링 및 검수 지침 마련,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제 정책 결정,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선례 분석 및 개선 결정 등이다.⁷⁾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정의
	제6조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독자의 권리보호 의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광고의 정의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의 예시 및 금비
	제7조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제8조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제8조	매체물의 등급 구분에 관한 사항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마련 의무
	제42조	정보제공자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의무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제42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21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무

<표2.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 관련 현행 법률⁸⁾>

7) ,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한국언론진흥연구원 선임연구원

8) 박종호, 2013, p. 25, 발췌 및 재구성

근거	내용
<p>인터넷 신문 광고 자율 규제 가이드 라인</p>	<p>제5조(선정적광고의 제한) ①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침시를 해하여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소재가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라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향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2.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강간,윤간, 성추행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4.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5.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6.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7. 시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 피학성 음란증, 관중(觀音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8. 청소년을 성행위 성적일탈, 성범죄 등의 대상이나 주체로 표현하는 내용 9. 신체를 과도하게 성상품화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10.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11.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으로 유발하는 내용 12. 그밖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③특히, 성관련 상품(공산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류 등) 또는 서비스(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성상담, 다이어트프로그램, 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에 관한 광고의 경우 과도하게 선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청소년보호) ①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성인인증 또는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④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과 같다. 1. 가슴, 둔부, 서혜부(鼠蹊部) 등 신체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영상 또는 제작 이미지로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2. 광고문구로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청소년에게 정도에 이르는 것 3.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것 4. 청소년에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5. 그밖에 심의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한 것</p>
<p>인터넷 신문 광고 자율 규약</p>	<p>제6조(광고제작 및 표현)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제작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를 차별,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2. 자살 및 자해, 집단 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 상황에 대한 표현 3. 불쾌 불편, 성적 수치심, 성욕 등을 자극하는 저속, 선정, 음란한 표현</p>

	<p>4. 허위, 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표현</p> <p>5.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p> <p>6.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된 표현</p> <p>7. 그밖에 유관 법령에 따라 제한 금지되는 광고표현</p> <p>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초상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	--

<표3. 인터넷신문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자율규제 근거>

인터넷신문 광고의 심의를 위해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은 '라이브 모니터링'과 '체크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라이브 모니터링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사의 광고지면 단위로 광고물과 광고물에 연결된 페이지를 2영업일 주기로 전수 감시하는 것이다.⁹⁾

체크 모니터링은 인터넷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조건부 또는 부적합 결정된 광고가 유통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체크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광고물에 대해 심의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다시 안내함으로써 가이드라인 및 심의결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인터넷신문사 및 인터넷신문 광고물 유통사업자의 사회적,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같은 모니터링을 중심의 사후심의 이외에 인터넷신문 광고를 집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사전 심의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인터넷신문위원회 홈페이지).

이처럼 인터넷신문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체계가 구축돼 있어 선정적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 성과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체계적인 자율심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선정적 광고를 비롯한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심의 결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것도 매우 아쉽다.¹⁰⁾

9) 2014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신문 광고의 심의 건수는 총 413건이고 이 중 '부적합'이 371건, '조건부'가 16건, '적합'이 23건, '유보'가 8건이다.

10) 박종호, 2013,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5. 나가며

우리는 매일 포털에서 제공하는 클릭 수에 좌우되는 뉴스와 선정적 광고 속에 살고 있다. 보기 싫은 선정적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 반복되는 똑같은 뉴스를 보지 않을 권리가 아직 우리에게 없는 게 현실이다. 선정적 광고가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그동안의 여성운동으로 확대해온 모든 세력, 즉 정부를 대변하는 여성가족부와 자생적 여성·청소년·시민단체 등의 세력들과 함께 시민들 스스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의 선정성 기준을 다시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연구와 개선운동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허브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둘째,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시장 형성과 선정적 광고가 나오는 제도적, 사회 문화적 흐름을 고찰해야 한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인터넷신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달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언론 주체의 다양화 내지 시장 진입이 쉬워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기존의 중앙 언론 등에 비교할 때, 재정적 뒷받침과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기업으로서 생존해야 하는 여건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정부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공익적인 재정 지원정책¹¹⁾ 등을 통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당근 차원의 정책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갖기 운동이 필요하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 등은 사회 전체의 문화기류가 섹시미를 강조하는 데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방송과 음악, 영화 등을 비롯한 인터넷신문이 포함된 언론계 등의 자정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자율적인 자정운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 스스로 뽑은 나쁜 광고 캠페인 등의 활동', '저는 상품이 아닙니다'나, '저도 인간이고 싶습니다' 등의 캠페인을 통해 육체적인 섹시미만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여성의 섹시미와 선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모두가 차별 없는 평등한 분위기 속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공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11) 신생 인터넷언론 육성책으로서 인터넷언론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인 서버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중단되었다.

참고문헌

김위근, 2014,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한국언론진흥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종호, 2013,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김도현, 2010,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서경대학교수

캐서린 맥키넨, 신은철 옮김, 1997, 포르노에 도전한다, 개마고원

Andrea Dworkin, 유혜련 옮김, 1996, 포르노그래피, 동문선

김수정

1. 들어가며

우리는 늘 새롭게 구성된다.¹²⁾ 그것은 언제나 관계망 속에서 가능하다. '나'는 '나'에 대해 온전히 자율적으로 충족적인 서사를 마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는 타자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가 스스로를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 타자와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뜻이다. 오늘 나의 존재에 대해 홀로 떨어져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누구와의,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기말과제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다. 나는 왜 여성운동과 만나게 되었는가?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나는 이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내 가슴은 여전히 설레는가? 좋은 세상을만드는사람들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1년 동안의 실천여성학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나는 나의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성학자 허성우의 말처럼¹³⁾ 활동가로서 경험의 과잉과 지식의 결핍(허성우, 2008:43)으로 인해서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천여성학 수업시간에 허성우가 지적한 것처럼 '공부란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받아들인 나로서는 나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 또한 공부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2) , 2011, 여성주의 정치 페러다임 전환의 이론과 모색, 페미니즘 연구, 11(2), 119-152

13) 허성우, 2008,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지역운동에서 만나는 도전과 희망, 기억을 추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라

2.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을 만나기까지

나는 스물여섯에 결혼을 했다. 결혼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조용한 싸움터였다. 스물아홉에 아는 언니가 가정폭력으로 여성단체에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언니를 따라갔다. 나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거나 서류뭉치를 들고 분주히 사무실 안을 오가는 활동가들에게서 빛이 보였다. 그 날 나는 내 가슴에 꿈을 하나 새겼다. '내 반드시 마흔이 되기 전에 이곳에 내 책상을 놓으리라'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서른일곱이 되던 해 1월 여성단체 활동가가 되었다. 나는 활동가로 쉼 없이 성장해갔다. 내게 그 단체 활동은 인생에 다시 없을 소중한 인연의 끈이었고 삶을 배우는 학교였다. 그렇게 10년의 활동을 마무리할 즈음 사업예산 걱정 없이 맘껏 일을 하고 싶어 고민 끝에 공공기관에 입사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일에 불과할 뿐 내 가슴이 뛰지 않았다. 때마침 큰 딸이 많이 아팠고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또 어찌 어찌 일이 풀려 동작구로 다시 이사를 왔다. 서울 살이 22년 동안 집안사정으로 구로구로 이주한 3년을 제외하고는 쪽 동작구에서 살았다. 구로에서 동작구로 다시 이사 온 2014년 8월 나는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과 인연의 끈을 잡았다.

3. 다시, 가슴이 뛰다

이사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리를 만났다. 지렁이 화분을 얻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소개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보리가 말했다. 일요일 카페 지기가 다리를 다쳤는데 좀 봐줄 수 있냐고. 동네에 사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카페활동은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집에서 카페를 오가는 길이 너무 신기했다. 20여년을 살았으면서도 늘 일터가 멀었기 때문에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무슨 가게가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 밖 이었던 그 거리들이 새롭게 내게 말을 걸었다.

카페지기가 되어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보리가 이번에는 다른 주문을 했다. 거리 청소년들이 낮에 머무는 쉼터에 밥하는 활동을 해줄 수 있냐고. 일주일에 2~3일 오후가 되면 친구들과 밥상을 나눴다. 친구들과 같이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준비하면서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얘기했다. '이런 밥 처음이야, 선생님 언제 또 와요?' 나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엄마를 기

다리며 홀로 밥 먹던 딸들이 생각났고 마치 그 친구들을 통해 그 미안함과 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 친구들이 생의 어느 시점에 나와 함께 한 밥상이 따뜻한 기억으로 살아날 수 있겠다 싶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나는 친구들과의 밥상 약속을 한 날에는 간간히 들어오는 강의로도 거절하며 마음을 다해 쌀을 씻었다. 그리고 좋은세상에서 상근하고 싶다고 보리를 졸랐다. 때마침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활동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좋은세상의 자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4. 풀뿌리여성단체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이하 좋은세상)은 서울 동작지역의 풀뿌리여성단체를 지향한다. 서로 만나 소통하는 마을로 만들고 여성들 스스로 일상적 실천을 하면서 동네에서부터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2010년 1월 단체등록을 하였다.

풀뿌리운동에 대해 박영미는 14) 풀뿌리는 운동이나 조직 집단의 근본이 되는 일반 대중들, 특별한 권력이나 지위를 갖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풀뿌리 즉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아래로부터 의제와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 풀뿌리운동의 특징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좋은세상의 정관에는 지역주민들이 어우러져 즐겁게 마을활동을 하면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5. 좋은세상의 전개과정과 운동방식

좋은세상은 서울여성의 전화에서 지역운동의 중심 주체로 상근한 활동가 박신연숙(이하 보리)이 이전의 지역모임을 통해 만난 회원들과 그들과의 지역 활동을 접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시작되었다.

보리는 오랫동안 활동한 여성의 전화를 떠나면서 동작구로 이주해 새로이 터를 잡고 동네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보리는 활동을 그만 둘 때 자신이 행복한 운동을 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동네 뜨개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보리는 바로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동네 여성들을 사귀면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2009년 5월 중순부터 상도3동 주민센터 강의실을 빌려 주민강좌를 시작했다.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지나가는 주민들

14) , 2010,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과 풀뿌리여성 리더쉽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고 강좌를 홍보하였다고 한다. 홍보전단지를 모든 빌라와 마을버스에 다 부치면서 부지런히 발품을 푼 결과 지역여성 30여명이 강좌에 참여하였다. 강좌가 끝난 후 후속모임으로 '작은 마음들을 모아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풀씨모임'을 꾸려 서로 하고 싶은 주제의 공부도 하고 수도도 떨면서 모임이 끝나면 꼭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한다.

모임원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생태였는데 때마침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지렁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로 여성이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모델링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모임구성원들은 폭력예방은 예방교육만이 아니라 자연을 접하면서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는 평화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풀씨모임은 꿈틀이 텃밭을 매개로 마을 주민과 이웃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웃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아 제안을 받아들였다. 풀씨모임은 궁리 끝에 생태체험을 많이 하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주목했다. 골목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위치해있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어린이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이어 담벼락, 마을버스 정류장, 빌라 자투리 공간, 주민센터 등에 지렁이 화단을 조성하자는 꿈을 갖고 모임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게 되면 먼저 사람부터 만난다. 그 일에 제일 관심 많은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속에서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아이디어도 모으고 그 일에 필요한 자원도 발견하게 되니까.'¹⁵⁾ 좋은세상의 활동방식은 사람에게 정성을 많이 들인다.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허성우는 2008년 지역공동체운동은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되 공동체 삶의 형식과 내용을 변화함으로써 대안적 사회를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또한 기존의 남성중심적 가치와 패러다임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허성우, 2008;41). 좋은세상의 위와 같은 활동방식은 역지를 부려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 글 자체로만 본다면 이러한 비판에서 빚겨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풀씨모임의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는데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박신연숙,2012).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2010년 풀씨모임은 상도동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꿈틀이 텃밭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한편 2009년 8월 동작구 평화마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자신과 모임, 마을의 성장을 위한 열망이 모아졌고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간다. 3~4년 동안 지역에서 여성의 전화 회원활동을 해 온 10여명 남짓한 지역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2010년

15) , 2012, 동네에서부터 좋은세상을만드는꿈틀이마을, 새로운 주민조직방법론 사례와분석

1월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단체 창립총회를 하기에 이른다. (박신연숙, 2012) 단체 창립 후 좋은세상은 십대 가출여성, 가정폭력, 가족 내 갈등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과정 또한 회원들과의 수다 속에서 나왔다. 누군가가 우리 동네 누구 딸이 가출해서 고민하더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마을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하나?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아이디어들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회원들은 먼저 동네를 돌며 십대가 밀집한 거리를 찾기 시작했고 지역조사 결과 관악구와 경계를 이루는 '신림역'주변으로 활동지역을 선정하였다. 십대여성들의 자존감 향상과 성평등의식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틴모빌 교육을 통해 자원활동가를 배출하는 한편 십대들을 또래활동가로 역량강화 하였다. 이렇게 좋은세상은 살기좋은 생태마을 만들기과 십대 청소년들의 인권 두 축으로 활동들을 이어갔다. 좋은세상이 시작한 골목길 꽃길 가꾸기는 서울시에서 모델링하여 이제는 해마다 봄이 되면 아골목골목 주민들이 동네에 꽃나무를 심는 풍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네에 꿈틀이 화단을 조성하고 구석구석 쓰레기를 치워가며 조성한 좋은세상 회원들은 동네에 분양한 지렁이 지도를 만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지속적인 실천활동을 했다. '동네 한 바퀴활동'이란 주민의 참여로 안전마을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우리 마을의 아동 청소년 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동네한바퀴'를 돌면서 우리 마을이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느껴보고 체험한다(박신연숙, 2012) 2011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한 동네 한 바퀴는 2013년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하여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5년 현재는 서울시 전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2014년 동네 한 바퀴를 함께 돌던 회원들의 아이디어로 처음으로 안심거울길이 조성되기도 했는데 이는 주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지자체에서 받아 예산을 투여해 실현시키는 민관 협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동네 한 바퀴가 '지키자 데이'라는 동네 축제가 되고 지렁이를 분양받은 주민들과 기관들이 동네 공원에 모여 지렁이 관련 활동을 하면서 동네사람들이 모이는 '꿈틀이 마을축제'가 되고 거리에서 만난 십대들과 함께 '썸데이 거리축제'를 하고.. 좋은세상은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여성주간 행사 요청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정보를 들은 회원이 제안하면 단체채팅방에서 이에 대해 알리고 함께 할 사람이 몇 명이 되면 하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회원이 모이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들 상담카페인 마을카페와 일시지원쉼터 '나무'도 이런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거리 상담을 하던 회원들이 청소년들과 더 편안한 장소에서 즐겁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 치열한 찬반논의를 거쳐 카페 개업이 결정되면 십시일반 회원들이 돈을 모으고 역할분담을 하면서 현실화시킨다. 나는 좋은세상의 이러한 활동방식이 매우 감동스러웠다. 2015년 서

울시로부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받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2014년 여름 회원 중 누군가 청소년사업이니 좋은세상에서 해야지 하며 제안하였다.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치열하게 찬반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의 역량 상 가능한가? 왜 우리여야 하는가? 등 논의 끝에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다시 이 논의는 점화되었고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탁지원을 결정하고 진행되었다. 이렇게 좋은세상활동참여를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 뿐 아니라 동네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새롭게 선 자신을 만나게 된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내 새끼들 잘 키우고 내 아이들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좋은세상에서 교육한다기에 왔다가 코가 끼었는데 잘 끼었어. 작년에 안전마을 활동하면서 절감했지. 아 이게 내가 아무리 내 새끼를 단속해도 동네가 안전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네가 새로 보이는거예요. 아 저기는 좀 위험하겠는데, 아 저기는 쓰레기를 치워야겠는데 내가 변하는 것을 느끼지요’

‘그냥 우울했어요. 별로 사는 게 그리 재미도 없고 동네사람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있었지요. 침대위에서 뒹굴다가 해가 저문 적도 많아요. 그러다 같이 교회 다니는 00샘이 이런 데가 있느냐 같이 가보자고 해서 구경 왔었어요. 처음에는 회비가 너무 아까워 회원가입도 안했어요. 그러다 한번 와 두 번 와 하다 보니 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렁이 키우는 것도 재미있고 .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농사짓는 재미도 크고. 그러다 맨날 오고 싶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우울하지 않는거예요. 자꾸 나오고 싶고 오늘은 뭐 있나 궁금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고...

16)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목은 시장/국가와 개인 사이에 ‘지역’이라는 사회적 장을 재구성해내려는 노력이며 동시에 개별적으로 불안에 대비하라고 요구받는 개인들을 ‘마을’이라는 인간관계망 안에 위치한 존재로 재 호명 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지역운동’, ‘풀뿌리운동’, ‘생활정치’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온 이러한 실천들에서 여성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서울 같은 거대도시에서 ‘마을’만 들기는 주로 ‘주부 어머니’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거나 참여자 다수가 여성들로 구성되는 현상들이 두드러진다. 전희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지역’과 ‘여성’사이에 만들어져 온 깊은 연관성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공/사 분리체계가 해체되지 않는 한 ‘지역 풀뿌리 생활’정치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재생산할 위험도 있다(전희경 2014, 이진아 1996, 이현희 2004). 두 번째 문제는 지역 ‘공동체’와 ‘여성’사이의 관계에 내포된 긴장이다. 흔히 ‘공동체의 위기’는 가족 해체, 돌봄의 공백 등의 사회현상과 관련되며 사회적 불안의 책임은 암묵적으로 과거와 같은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여성들 탓으로 떠넘겨진다(전희경, 2014)고 비판한다. 나는 이러한 전희경의 비판에 대해 앞의 두 좋은세상 회원들의 활동사례를 가지고 다시 얘기해보고 싶었다. 물론 전희경의 비판이 제기하는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재생산위험성에 대해

16) ,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페미니즘연구, 14(1) p. 75-112

인정하지만 박영미는 마을만들기 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지역문제에 1차로 밀접하게 결합된 사람들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지역문제에 누가 제일 많이 노출되고 누가 전적으로 고민하느냐 바로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처럼 집안사람과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은 잘못된 성역할구분으로 생기는 문제 이기는 하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여성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성인여성들의 절반이 전업주부로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상황에서 매일 매일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 어렵다. 성차별적인 고용상황 때문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여성들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다. 셋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자원과 일을 어떻게 배분하고 역할을 나누어 시행하여 더 많은 공동의 부를 형성하며 전체 및 개별의 요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의 집안 살림과 돌봄의 경험은 이런 능력과 관련이 있다.(박영미, 2010) 나는 박영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에서 전희경의 의견에 일부 부정하는 것이다.

6. 나가며

나에게 있어 여성운동의 매력은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실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현재 있는 좋은세상의 단체활동 경험은 나를 새롭게 구성할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나는 좋은세상에서 풀뿌리 운동을 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일상의 관계와 일이 통합되는 경험을 하였다. 물론 좋은세상은 활동의 과정 안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만나고 예기치 않게 위탁단체를 2개나 운영하게 된 현재에 제도화와 어떻게 만나야 할지, 공채를 통해 만나게 된 활동가들이 얼마나 회원 속에서 녹아들지 등 수없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세상의 활동은 지역풀뿌리 여성단체활동으로 충분히 유의미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임국희, 2011, 여성주의 정치패러다임 전환의 이론적 모색, 페미니즘 연구, 11(2), 119-152

허성우, 2008,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지역운동에서 만나는 도전과 희망, 한국여성의전화 25주년 기념지역운동 심포지엄 자료집 기억을 추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라

박영미, 2011,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와 풀뿌리여성 리더십

박신연숙, 2012, 동네에서부터 좋은세상을 만드는 꿈틀이마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새로운 주민조직 방법론 사례와 분석

전희경,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페미니즘연구, 14(1),75-112

김은지

1. 소녀, 음지문화를 만나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한참 아이돌그룹 '신화'에 빠져있었던 나는 신화 멤버들과 가상의 여자가 등장하는 '이성팬픽'을 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사촌언니에게 내가 쓴 팬픽을 보여주게 되었고, 내가 쓴 팬픽을 읽은 사촌언니는 "너는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른 여자랑 사귀는 게 좋아?"라고 물었다. 사촌언니의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싫다면 그럼 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내가 아는 연애소설은 모두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이 알콩달콩 연애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상상해본적도 없었고, 상상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 날 사촌언니는 나에게 신화 멤버들끼리 커플이 되는 '동성팬픽'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동성팬픽이라는 '음지문화'였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왜 동성팬픽은 음지문화로 분류되는 것일까?' 같은 팬픽이지만 가상의 여자나 여자연예인과 남자아이돌이 커플이 되는 이성팬픽의 경우에 음지문화라고 분류하지 않는 반면에 유독 남자아이돌끼리 커플이 되는 동성팬픽의 경우에는 '음지문화'라는 이름부터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몰래 하는 느낌으로 분류된다. 동성서사에 대한 언급은 여성커뮤니티사이트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양지로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분류된다. 동성서사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게시판은 따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게시판에서 동성서사를 언급하는 것은 '매너 없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이 된다. 동성서사를 공유하는 여성 스스로도 음지문화는 음지에서만 즐겨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성팬픽과 동성팬픽의 생산자·소비자의 수적이 차이를 놓고 보았을 때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동성팬픽의 생산자·소비자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다. 팬덤 내에서 유명해진 동성팬픽은 5대 팬픽 등의 이름으로 마치 ‘필독도서’ 또는 ‘팬픽입문서’처럼 명명되고 책으로 발간되기도 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성팬픽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동성팬픽은 여전히 음지문화로 분류되며 숨겨야하는 비밀스러운 것으로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서사를 공유하는 여성들 역시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숨여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왜 동성팬픽은 음지문화로 분류되는 것일까? 동성팬픽이 음지문화로 분류되어야만 하는 혹은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2. 금지된 소녀의 욕망

2000년 8월, 인터넷 정보등급제 실행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그런데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사이트에 난데없이 ‘소녀’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당시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을 항의 글로 도배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 10대 여학생을 행동하게 만든 것이, 바로 팬픽이었다. 당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항이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성관계의 일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팬픽은 음란물이 되었다. 이들은 ‘검열 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에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외쳤다.¹⁷⁾ 팬픽을 스스로 음지문화라 명명했던 소녀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양지로 나온 것이다. 소녀들은 어떻게 양지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양지로 나오려고 했을까? 이 질문은 한국사회에서 10대의 성, 특히나 여학생의 성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10대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떠한 규범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부류다. 그래서 10대들의 ‘어긋남’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에 근거한다.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으면 주저하지 않고 금지한다.¹⁸⁾ 특히나 그 기준은 청소년의 ‘성’과 관련 된 문제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 중에서도 여성청소년의 성에 대한 통제는 남성청소년의 성에 대한 통제보다 더 강력하다. 여성청소년의 성에 대한 통제가 더 강력한 이유는 한국사회가 여성의 성 자체를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위치시키

17) , 2013,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중 “동성서사를 욕망하는 여자들 : 문자와 이야기 그리고 쿼어의 교차점에서”. 자음과모음. p. 196

18) 변혜정 엮음, 2011,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 10대와 어른, 섹슈얼리티로 소통하다.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기획. p. 31

기 때문이다. 여성청소년은 '통제되어야' 하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보호되어야' 하는 청소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층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교교실에 있지만 다 같이 둘러앉아 야동을 보는 남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글로 써진 팬픽조차 음지에서 몰래 숨어서 봐야만 하는 여학생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의 이중규범은 여성청소년이 '임신'이 가능한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성'이 '성행위'와 등치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청소년의 성에 대해 논의할 때 '무분별한 성행위'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청소년의 성 알고리즘 속에서 남성청소년이 여성청소년에 비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임신의 공포'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반면 초경이후로 임신이라는 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여성청소년은 "이제부터 몸가짐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당부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여성청소년을 '임신의 공포'에서 실질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피임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지만,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는 '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행위 자체를 차단시키는 것으로 어른들은 공포에서 손쉽게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청소년이 무성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성적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도가 모두 가로막히면서 오히려 어른들에 의해 성적대상화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됐다. 사회는 금지된 것에 대한 '성인(특히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특히 여성)청소년을 타자화시킨'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교복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페티시의 상징이었고, 여고생이라는 타이틀을 단 야동은 어디에나 있으며, 침대 걸그림들은 '오빠를 사랑해'라고 노래하지만 그 속에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은 없다.¹⁹⁾

그렇지만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했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애매한 권리가 청소년에게 부여되었다. 결국 성적 주체로서 청소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인해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과 성적주체 사이에서 표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검열 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외쳤던 소녀들이 왜 양지로 나오려고 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해보자. 그것은 비록 음지에서였지만 팬픽은 소녀들의 성적욕망에 대해 자유롭게 드러내는, 드러낼 수 있는 매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팬픽이 10대라는 특정한 시기에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일시적으로 하고 마는 것 수준으로 팬픽을 이해하며 팬픽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탈락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팬픽,

19) , 2012, 권리의 공백, 청소년의 성적 권리. 여/성이론, p. 241

특히나 동성서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동성팬픽에 이토록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소녀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팬픽은 한국사회에서 철저하게 삭제되었던 여성의 성적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자신의 성적욕망에 대해 드러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성적욕망을 드러내는 행위는 같지만 발화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자신의 성적욕망에 대해 드러내는 행위는 철저하게 성적대상으로 위치해있던 자신의 위치를 성적주체로 바꾸어낸다. 또한 남성에 의해 형성된 남성 중심적인 성적욕망에 대해 균열을 낸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동성서사를 적극 활용하여 팬픽 속 남성캐릭터를 여성의 욕망에 맞추어 설정함으로써 주체와 대상의 위치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린다. 팬픽을 통해 여성이 시선의 대상이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관음 할 수 있으며, 남성을 성적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픽에 대한 두 가지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하나는 동성서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성캐릭터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아주 기능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또 다른 여성혐오를 생산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수라는 역할분담을 통해 젠더화 된 권력관계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다.

3. 팬픽의 정치적 의미에 대하여

1) 동성서사를 통해 '성차'배제하기

동성팬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캐릭터가 완전히 삭제된 채 등장하지 않는 팬픽, 두 남자주인공의 행복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천하의 쌍년으로 그려지는 여성캐릭터가 등장하는 팬픽, 완전히 반대로 남자주인공을 도와 두 남자주인공이 무사히 커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역할을 해서 동성서사에 위협이 전혀 되지 않는 여성캐릭터가 등장하는 팬픽이다. 이러한 동성팬픽의 설정이 여성혐오 생산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먼저 팬픽에서 여성캐릭터가 완전히 삭제된 채 등장하지 않는 것은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를 배제하는 것이다. 마크 맥해리의 말대로, "꿈임없이 진화하는 재현들은, 그 재현들을 방해하는 대립적 콘텍스트를 결핍시키면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호모에로티시즘(homoeroticism)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유동성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라는 대립적인 성 정체성의 형태로 젠더적 특징을 구축하는 현실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²⁰⁾ 성차가 배제된 동성서사 속에서 팬픽을 소비하는 여성들은 이성애중심의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젠더화 된 권력관계에

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다음으로 두 남자주인공의 행복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여성캐릭터는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여성캐릭터와 다른 위치에 놓인다. 이성애자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 사이에 등장한 또 다른 이성애자 여성캐릭터는 분명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이 평화롭게 유지하고 있는 1:1의 관계에 긴장감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위치에 놓인다.

반면에 동성애자 남자주인공과 남자주인공의 사이에 등장한 이성애자 여성캐릭터는 남자주인공과 이성애자 여자캐릭터를 결혼시키려는 어머니의 등장과 같은 설정으로 인해 긴장감은 유발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동성서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동성애자 남자주인공과 이성애자 여성캐릭터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성애자 남자주인공에게 다른 동성애자 남성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이다. 또한 이성애자 여성캐릭터에 의해 두 남자주인공의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녀야'라는 방식으로 환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서사에 등장하는 이성애자 여성캐릭터는 오히려 동성서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하게 유지되는 동성서사를 통해서 팬픽을 생산·소비하는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

2) 고정화 된 남성성에 대한 해체

동성팬픽에는 '공/수' 라는 캐릭터 설정방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설정방식에 대해 공을 '남성성'을 가진, 수를 '여성성'을 가진 캐릭터로 보고 현실세계의 이성애적 질서를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남-남 러브스토리에서 아무리 공수를 명확히 설정한다고 해도, 팬픽의 독자와 작가는 이들에게서 보통의 남-녀 커플과 다른 지점을 느낄 수밖에 없다.²¹⁾ 흔히 레즈비언 중에서 '부치'²²⁾가 '남성성'을 재현한다는 지적을 받는데, 짧은 머리를 하고 넥타이를 맨다고 해서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으로 규정하거나 남성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치가 남성성을 재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았을 때 여성성을 드러내는 '수'가 동성서사에서 삭제된 여성캐릭터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는 여성캐릭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캐릭터로서 '수'의 역할을

20) Mark Mcharry, 2007, "Identity Unmoored : Yaoi in the West", in Queer Popular Culture : Literature, Media, Film, and Television, Thomas Peele ed., Palgrave Macmillan, p. 191

; , 2011, 야오이를 전유한 동아시아 남성 동성애 영화재고, 영상예술연구 19호. p. 15 재인용.

21) 류진희, 2013,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중 "동성서사를 욕망하는 여자들 : 문자와 이야기 그리고 퀴어의 교차점에서", 자음과모음, p. 214

22) 레즈비언 사이에서도 옷차림이나 성격, 좋아하는 여성의 스타일에 따라 다이크(dyke)·부치(butch)·펌(femme)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두산백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성애중심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팬픽을 이성애중심질서 속에서 판단하거나 분석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작가가 설정한 공/수관계는 명확하게 공과 수로 분리되어 고정화된 것이 아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팬픽의 등장인물들은 현실세계에 실존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공'과 '수'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로 '공'으로 설정되는 캐릭터와 '수'로 설정되는 캐릭터가 분명 존재한다. 그렇지만 '공'과 '수'로 설정되는 캐릭터는 작가의 선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주로 '공'으로 설정되는 캐릭터 역시도 '수'로 변환이 가능하며 주로 '수'로 설정되는 캐릭터 역시도 '공'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팬픽을 공유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공/수관계설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수시로 변화하는 공/수관계는 고정화된 권력관계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관계의 변화는 젠더화된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세계와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그리고 공/수관계 전환뿐만 아니라 공과 수의 종류가 다양화 되어 있다는 것 또한 현실세계와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공'이라고 해서 마초적인 성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정공'이라고 불리는 캐릭터가 존재하며, '수'라고 해서 꽃처럼 가녀린 성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랄수'라고 불리는 캐릭터가 존재한다. 이렇듯 '다정공', '지랄수'와 같은 이름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며 전형적으로 주도하는 캐릭터를 '공', 수동적인 캐릭터를 '수'라고 하는 설정은 전복된다.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커뮤니티

이선영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의 인프라는 기존의 미디어처럼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²³⁾ 그렇기 때문에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 역시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고, 이로 인한 여성혐오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스마트의 사용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SNS가 발달하게 되었고 여성혐오는 더욱 일상화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상화된 여성혐오는 여성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성커뮤니티를 통한 여성주체의 등장은 남성사회에 균열을 내기 때문에 남성중심의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커뮤니티는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런 시점에서 10대 여성들이 전유하는 팬픽 사이트의 존재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으로서 이들의 공동체는 여성들의 활발한 '사이버 공간 차지하기'의 대표적 사례이며, 팬픽이라는 텍스트의 내용 역시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에 대한 성적 환타지로 현실의

23) , 1988,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 배제구조와 저항에 관한 연구-PC통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2, 팬픽(fanfic)의 환타지와 성적체성. 여/성이론, p. 198, 재인용.

지배적인 성 질서와는 거리가 먼 동성애가 주소재로 쓰인다.²⁴⁾ 그렇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드러내서는 안 되는 여성의 욕망을 현실세계의 이성애질서를 교란시키는 동성서사를 통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며, 향유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은 팬픽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나가며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여성은 성적대상화 되어있었다. 특히나 청소년의 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청소년은 성적주체가 되지 못하는 동시에 성인남성에 의해 성적대상화가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청소년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남성연예인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수로 설정하고 성행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기술하며 그것을 소비하여 금지되어 있던 자신의 성적욕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현실세계의 젠더화된 권력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여성혐오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이성애질서를 교란시키는 팬픽을 공유하며 여성커뮤니티를 형성했고, 남성사회에 균열을 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점은 10대에 동성팬픽을 향유하던 여성청소년이 경제력을 갖춘 직장인 여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사이버 공간에서 팬픽을 생산하고 소비했던 주체에서 이제는 현실세계로 나와 동성서사를 다루고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주체가 됐다. 실제로 <왕의 남자>, <쌍화점>,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등과 같이 동성애코드가 들어가 있는 영화관에는 많은 수의 여성관객이 들었고, 그들의 티켓파워는 이미 입증됐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전략적으로 동성애코드를 사용하여 흥행시도를 했고, 신인 남성배우들은 '게이역할'이라는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퀴어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퀴어영화에 등장하는 남성배우를 지지하는 팬덤을 형성하는 여성관객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적욕망을 드러내는 '여성주체'가 존재하며 그들의 힘이 실제로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중심의 사회에 여성이 균열을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균열에 주목해야 한다.

24) , 2002, 팬픽(fanfic)의 환타지와 성적체성. 여/성이론, p. 198

참고문헌

김경태, 2011, 야오이를 전유한 동아시아 남성 동성애 영화재고. 영상예술연구 19호

김민정, 2002, 팬픽(fanfic)의 환타지와 성정체성. 여/성이론

류진희, 2013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중 "동성서사를 욕망하는 여자들 : 문자와 이야기 그리고 퀴어의 교차점에서", 자음과모음

변혜정, 2011,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 10대와 어른, 섹슈얼리티로 소통하다, 유쾌한섹슈리티 인권센터 기획

이선영, 1988,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 배제구조와 저항에 관한 연구-PC통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쥬리, 2012, 권리의 공백, 청소년의 성적 권리, 여/성이론, 241p

Mark Mcharry, 2007, "Identity Unmoored : Yaoi in the West", in Queer Popular Culture : Literature, Media, Film, and Television, Thomas Peele ed., Palgrave Macmillan, p.191

백향숙

1. 들어가는 글

드라마 속에서 욕망을 가진 여성은 '악녀'로 재현된다. 사랑과 성공과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해 주변 여성을 함정에 빠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하면서도, 죄의식조차 없는 악행이 재현된다. 그러나 사랑과 사회적 지위상승을 욕망하지 않는 명랑함과, 친절함, 따뜻함과 배려를 갖춘 순진무구한 여성에게는 부와 사회적 지위를 겸비한 남성이 등장하여 그녀를 모함하는 경쟁자까지 처벌해주는 구원자가 되어주며 사랑과 정성으로 그녀를 지원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상승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제2의 성>에서 보부아르는 남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주체됨의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주체됨의 지위를 승인받고자 대자적인 여성 존재를 부인하면서 여성을 대상화된 '타자'의 위치로 격하시킨다고 말한다. '여성'은 남성에게 자율적인 독립체가 아닌 '성적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부아르는 말한다. "여성은 남성과 관련한 차이로서만 정의될 뿐, 그녀와 관계된 그란 없다. 즉, 그녀는 본질적인 것과 대조되는 비본질적인 것이며 우연적인 것일 뿐이다. 그는 주체이며 절대자이지만, 그녀는 타자이다(Beauvoir 1993, 초두리, 2006: 39 재인용).

여성의 욕망이 남성을 매개하지 않을 때 욕망과 여성 주체가 부정되고 악녀로 호명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부아르의 지적처럼 여성이 비본질적인 것, 우연적인 것일 뿐으로 주체인 남성에게 의해 대상화된 타자로만 위치하기 때문이다.

남성을 매개하지 않고 성공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욕망할 때 미디어 속 여성은 부정되고 욕망조차도 실패하지만 이와는 달리 몸가꾸기를 통한 자기계발서사는 여성의 성공과 인정을 허락한다. 여성의 지위상승은 몸에 의해 도달해야 처벌받지 않는다. 그 시대가 만들어놓은 획일적인 외모기준 안에 가두기 위한 자율 규제만이 처벌받지 않는 자기계발서사로 인정받는다. 지위상승을 욕망하는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던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외모가꾸기를 통한 자기 계발, 자기 통치는 인정받고 찬양받는다. 푸코가 말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권력이 분산되고 개인의 자기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통치성의 내재화를 통한 내부에서의 통치가(즉,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통치하는 것) 작동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푸코, 1994, 조은, 2009:73 재인용) 이러한 주체화 과정에서 "욕망"의 통제와 통치는 가장 주요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내용을 구성한다(조은, 2009:73).

하지만 외모가꾸기는 남성중심사회의 대상화된 몸으로서의 욕망에 의한 통치성의 내재화이기 때문에 여성의 주체화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인대회에서나 볼 수 있는 외모와 아주 거리가 있는 과체중의 여성은 이러한 담론에 의해 비하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 과체중을 포함한 사회가 정한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외모를 가진 여성 사이에서도 이런 비하를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이 욕망해서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욕망하느냐의 문제이다. 누구의 욕망을 욕망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제껏 남성이 가졌던 욕망을 여성이 욕망할 때 여성은 부정되는 것이다. 여성은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여성의 욕망은 남성 기준 안에 있을 때 인정된다. 여성의 주체를 부정하는 미디어의 재현은 남성중심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여러 국면에서 재현하고 확대재생산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여러 젠더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의 용례에서 여성혐오는 젠더질서를 가동시키는 기저 정서를 가리키는 개념어라기보다, 여성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어딘가 반여성적'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과 맥락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차별, 폭력, 멸시, 비하, 찬양 등을 밀어낸 자리에 '여혐'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섰다는 것은, 각각의 사태와 상황을 엄밀히 구분하고 풍부한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들어설 공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윤보라, 2015:1).

미디어는 세상을 보는 투명한 창을 제공하지 않고, 세상을 각기 다르게 재현한 것이나 이미지들이 간접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미디어는 우리가 세상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세상을 보는 선택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재의 성격을 띤다(버킹엄, 2003:17). 오늘날 미디어는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힘으로서 가족, 교회, 그리고 학교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미디어는 일상생활의 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해석하며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사용하는 많은 '상징자원'을 제공한다. 로저 실버스톤이 주장한 것처럼, 미디어는 이제 '경험의 핵심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버킹엄, 2003:20-21). 수용자는 지배적 문화 질서가 정당화시킨 코드에 따라 선호된 해독을 하는 지배적-헤게모니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지배적 코드를

채택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잠재력을 가진 모순적 입장인 타협적 입장을 취할 수도, 대항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프록터, 2006:134-135). 하지만 수용자가 미디어 속 재현 중 어떤 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에 대해 여전히 뭔가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재현을 어떤 면에서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버킹엄, 2006:102). 알튀세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무의식의 차원에서 작동한다.

연구자는 여성이 주체로서 부정되는 여성재현과 주체로 인정되는 듯이 보이지만 남성의 대상으로서 주체로 보이는 결국 비체가 되는 양상을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드라마 속에서의 여성재현

1) 금수저로 재현되는 생물학적 모성이데올로기

생모는 왜 항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을까? <내 딸 금사월>에서 금사월의 생모 득예는 그룹 회장 사모님이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으며 그림에도 조예가 깊어 금사월에게 그림 보는 법, 건물을 보는 법을 가르친다. <여왕의 꽃>에서 강이슬의 생모 레나 정은 독학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방송인으로서도 인정받는 그룹의 맘머느리이다. <스캔들>의 하은의 생모 윤화영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자 그룹의 사모님이다. <신들의 만찬>에서 준영의 생모 성도희는 한식요리의 5대 명장이다.

요즘 우리사회에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인간등급표가 유행하고 있다. 금수저/흙수저/은수저/동수저라고 해서 신분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연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자산 20억 이상, 연소득 2억 이상이면 금수저라고 하고, 자산 10억 이상 연소득 1억이면 은수저, 자산 5억 이상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은 동수저, 그 이하는 흙수저라고 한다. 노력에 상관없이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치가 경제적 힘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88만원 세대의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 이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모두 포기할 수 있다는 M포 세대에 이어 청년 사이에 신조어가 통용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노력만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바우만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능력을 주로 생산자로서보다는 소비자로서 쓰도록 한다(바우만, 2009:122).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자 사회이

다. 소비로 주체를 설명한다. 바우만이 말하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소비주체를 충실하게 실천한다.

한국의 모성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발현하는 지점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저출산, 워킹맘, 글로벌 모성, 부계혈통주의에 초점을 둔 조은에 착안해 연구자는 한국의 생물학적 모성이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발현하는 지점으로 금수저의 역할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의 매개성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소비로서 주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자유주의시대에서, 생모와 이별하여 힘들게 살고 있던 친자녀들은 성품과 능력과 자본이 풍부한어머니의 등장만이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된다. 어머니의 할 일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성은 사랑과 정성으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 찾게 된 생모를 만난 이후 자녀들의 행복과 성공에 결정적 역할은 키워준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아니라 생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에 의해서이다. 생물학적 모성'은 언제나 여성을 모성으로 회귀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였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당연히 여성에게는 '모성애'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부장제의 정형과 생물학적 어머니만이 진실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정형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 해도(손희정, 2004: 33) 생물학적 어머니의 능력은 경제적 지원이 생략되지 않는다.

2) 양녀와 양아들이 재현되는 방식

양녀들은 친딸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키워준 어머니가 딸을 찾는데 방해자로 재현된다. 그리고 양딸의 주변을 배회하며 양딸의 스펙을 방해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악녀로 재현된다.

<신들의 만찬>(MBC/ 2012.02.04.~2012.05.20.)에서 성도희의 양녀 하인주(서현진 분)는 요리대항에서 친딸 고준영(성유리 분)을 이기기 위해 미각을 잃게 되는 약을 고준영의 식자재에 넣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 김도윤이 대회 평가자로 온다는 것을 알고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고준영에게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여 고준영을 위기에 빠트린다. <내 딸 금사월>에서 양딸 오혜상도 자신의 보육원 친구이자, 25년을 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딸 금사월에게 공개모욕을 주고 함정에 빠뜨려 매번 대회에서 탈락하게 하거나 불명예를 남기는 악행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스캔들>에서 윤화영의 양아들 장은중은 하인주와, 오혜상과는 다르다. 장은중 역시 친아들이 되기 위해 부모에게 충성하지만 어머니가 친아들을 찾다는 것을 알고 방해자로 재현되며 친아들인 하은중의 등장 이후 하은중을 경계하고 방해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친아들 하은중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내 딸 금사월'의 오혜상은 흠수저인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생애 주기별로 악녀를 재현한다. 열 살 때는 흠수저인 부모를 부정하고 금수저 어른을 친부모로 만들기 위해 보육원의 단짝친구였던 친자식을 만날 수 없게 방해한다.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25년간 키워준 엄마에게 양딸로 사는 서러움, 사랑에 굶주린 외로움으로 왜곡 확대한다. 오혜상은

“제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사월이만 이빠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오혜상을 키워준 엄마는 남편내조 잘하고 항상 삐딱한 혜상이를 가슴아파하며 사랑으로 키워준 전형적인 여성으로 재현된다. 오혜상의 울부짖음에 가슴아파하는 그녀에게 오혜상의 고백은 제도적 모성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오혜상은 흠수저인 부모를 부정했고, 금수저인 어른을 부모로 만들기 위해 부녀 사이를 감췄고,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주변사람에게 생계를 위협했고,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배신하고 금수저시아버지를 만들기 위해 식구의 연인을 빼앗고, 태생이 흠수저인 어른은 마치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결국에는 처벌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관성 있는 악녀로 재현되는 것이다.

3) 구원자로 재현되는 아들

생모를 찾은 딸은 생모의 후원을 받아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풍부해지는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재현되는 데 반해 생모의 아들은 생모의 구원자로 재현된다. 아버지가 자신을 유괴한 유괴범임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친부의 악행을 쫓던 열혈 형사 하은중은 친부가 생모인 윤화영에게 점점 폐인을 만들기 위해 약을 먹여 병자로 만든 후 비밀장소에 은폐했음을 알게 되고 결국 생모인 윤화영을 찾아내 위기 상황 직전에 구출해낸다. 생모의 구원자는 25년간 키워준 아들이 아니라 25년이나 헤어져 살았던 친아들로 재현된다. 여성에게 구원자는 항상 남성으로 재현된다.

사월이의 생모 득예는 아들이 없다. 득예는 사월이의 든든한 후원자로 재현되지만 득예가 아버지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한 과정에는 여성 아닌 남성이 후원자가 되고,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사월이의 보육원 친구인 오월이의 오빠와 아빠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득예를 돕고 있다. 심부름센터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득예에게는 결정적 순간마다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능력으로 득예를 도와준다. 득예의 친딸 사월이가 득예가 원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원수인 남편을 공격하지만 이는 생모를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구원해주는 방식으로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정의로움의 발현으로서의 공격이 재현되고 있다.

딸 아닌 아들만이 어머니의 구원자로 재현되는 것은 한국에서 아무런 권력이나 자원이 없이 '시댁'으로 시집 온 여성이 그 집안에서 힘(남근)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남근)을 낳아야 했던 조건들 안에서 아들은 생래적으로 구원자의 형상을 떨 수밖에 없었다(손희정, 2015)고도 볼 수 있겠다.

4) 자기계발 하는 여성재현

소비가 주체를 증명하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여성이 신데렐라 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여전히 신데렐라는 재현되지만 스스로 지위를 상승하려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주체적인 자기계발서사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의한 자기통제 <신들의 만찬>에서 백설희는 도윤의 엄마로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주)사나라의 회장이다. 가장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다. 가족보다는 자신의 성장을 더 중요시 하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인물이다. 자신의 일을 중시하던 백설희는 어린 아들의 위기 상황에서 전화를 받고 즉시 달려오지 않아 아들이 죽는다. 이 일은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30년이 지나서까지 아들의 외면을 감수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성공은 지독하고 이기적 여성이라는 평가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외면이나 상실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남자가 자기를 뺀히 쳐다보면 여자는 눈길을 돌리거나 아래로 내릴 것이다. 여자의 시선은 보는 이로서의 주권적 지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훈련된다. '착한' 여자 아이는 보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쳐다보는 '헤픈' 여자가 하듯이 대담하고 분방하게 주시하지 말라고 배운다(바트키, 1998: 215) 상대방을 정면에서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주장을 주저 없이 말하는 여성의 악녀 재현은 바트키가 말한 착한 여자/헤픈여자의 반복 재생산을 돕는다. 정면에서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주장을 주저 없이 말해도 악녀가 되지 않으려면 쳐다보는 상대방이 드라마의 최후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 할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할 때이다. 금사월이 강만후에게 고개를 뺏뺏이 들고 큰소리를 쳐도 악녀가 되지 않는 것은 강만후가 처가의 재산을 빼앗고 문화재 재건의 전문가인 장인의 설계도를 빼앗을 뒤 25년간 정신병원에 감금한 채 아내에게는 속이고 있는 악의 혼합체이기 때문이다. 오혜상은 금수저인 강찬빈과 결혼을 계획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을 욕망하면서도 강찬빈의 생모도, 강찬빈의 아버지도 뺀히 쳐다보는 '헤픈'여자로 재현된다. 강찬빈의 생모는 아들에게 어머니 대접도, 남편에게 아내 대접도 못 받는 그래서 가족 행사에서 의자 하나 없이 서있어야 하는 강만후의 첩이라는 위치성 때문에, 강찬빈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회장이지만 자기와 같은 젊은 여성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업을 번창하게 될 만큼 미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로 주장하

고 빨리 쳐다보는 '헤픈'여자로 재현되는 것이다. 여성의 주체적인 삶과 도약은 항상 비 도덕한 악행과 멸시를 통해서만 도달하는 악녀 재현으로 인해 여성의 주체성은 부정된다. 여성의 주체성은 억울함과 누명, 역경과 미래의 암담함 속에서도 씩씩함과 명랑함, 웃음과 이웃 사랑이 있을 때에만 남성을 매개로 인정된다. 즉 적극적인 여성의 주체성은 항상 부정되고, 주체로 있고자 하는 욕망 없는 여성만 악녀 여성이 욕망했던 그곳의 입장을 허락한다. 금사월은 강만후와 오혜상이 저지른 악행에 의해 가해자로 물리는 억울함 속에서 책임감과 사랑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돌봄으로써 생모를 만남은 물론, 금수저의 사랑획득자격을 부여받는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되고 싶은 욕망'과 '가지고 싶은 욕망'을 모두 동성에게 추구한 이가 동성애자가 된다. 이성애 질서 아래에서 아들이 '남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여자(성적 객체)를 소유하는' 성적 주체와 동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치즈코, 2010: 34) 남성은 남성이 되면서 동시에 여성을 가져야 하는데 남성이 됨과 동시에 남성을 욕망하는 것이 동성애자라고 했다면 이것을 드라마 속 악녀 재현에 대입해보면 여성은 여성을 욕망해야 하는데 남성의 영역에 도달하고 싶은 남성을 욕망함으로써 남성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즉 성적 객체로 존재하지 않고 성적 주체로 존재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여성은 악녀로 재현되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객체가 여성으로 남성의 구원이 도달할 때까지 비체가 되지 않는 한 여성은 악녀로, 혐오의 대상이 된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성 멸시-를 '여성 혐오'라고 한다(치즈코, 2010: 37)

3. 오락프로그램 속 여성 재현

드라마 속 여성이 남성을 매개하지 않고는 욕망의 주체로서 부정되고 그 결과 욕망이 실패하는 반면 몸가꾸기를 통한 자기계발서사는 여성의 성공과 인정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추동하는 여성들의 '자기 계발 서사'의 원형을 제시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강한나'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약한 '나'가 아닌 강한 '나'라는 내러티브의 지향점을 강하게 지시하는 것처럼 영화의 서사는 '자기에의 몰두', '자기로의 집중'을 강조한다. <미녀는 괴로워>가 서사의 진행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나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여성 정체성이다. 영화에서 미모는 젊은 여성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스펙의 하나로 간주된다. 이 때 신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미모 가꾸기 및 성형은 자신에 대

한 투자이다. 강한나의 몸은 그녀의 목소리가 지닌 잠재 역량을 제한하는, 즉 자아실현 혹은 자아추구를 방해하는 요소이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뚱뚱하고 못생긴 몸은 제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주체에게 성형은 자조이자 DIY이며 자기의 테크놀로지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우만이 '포스트모던한 자기애'라고 정의내린 것으로서, "몸을 자기만의 소유물, 자기만의 상품, 자기만의 책임으로 대하는", 다시 말해 "내 몸을 내 작품"으로 간주하는 태도이다(권은선, 2012: 83-84).

바우만이 말한 '포스트모던한 자기애'는 '신자유주의 시대' '자기 계발 서사에 충실하지 못할 때 자기만의 상품을 소홀히 다룰 때 "종종 여성의 외모가 여성비하와 여성혐오의 근거로 작동한다.

KBS '대국민 토크쇼-안녕하세요'에서 6학년 아이에게 '돼지', '살 빠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자식은 아들 아닌 딸이다. MC 이영자에게 "살을 빼도 저 정도 아니냐. 시집도 못 가셨고"라는 발언을 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면전에 무례한 말을 할 만큼, 과체중인 사람을 놀리거나 살 빠라는 말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

'상처의 굴레에 갇힌 가슴 아픈 지원자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원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준다'는 기획의도를 가진 tvN의 랫미인(Let美人)은 지원자들이 선발돼야 할 안타까운 사연의 극대화를 위해 이들을 '초고도비만녀', '살에 묻힌 그녀', '괴물엄마', '악취엄마', '울상언니', '은둔녀', '노안녀', '쿠타킨테녀', '밥주걱녀', '턱주がり녀', '가려야 사는 여자'로 지칭하며 이들이 이들에 대한 언어폭력, 멸시 등의 인권침해를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 외모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는 지원자들을 지칭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모를 수정해야 할 대상 또한 여성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수술로 한 인간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지 괴물이 인간이 돼가는 것을 보는 것 같고 부럽고 놀랍고 근데 이 방송 보면 수술 너무 하고 싶어요', '오늘 방송은 감동이였네요. 얼마나 울었던지요...' 라는 게시판 댓글을 보면 지원자들에 대한 호칭에 대한 반감은 전혀 읽을 수 없다.

몸은 문화의 매체다. 몸이라는 표면 위에 문화의 핵심적인 규칙, 위계질서, 형이상학적인 문화 참여까지 각인되며, 역으로 그러한 규칙, 질서, 문화 참여가 구체적인 몸의 언어를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몸은 단지 문화적 텍스트만은 아니다. 인류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와 철학자인 미셸 푸코의 주장대로 실제로 사회적 통제가 직접 행해지는 장이기도 하다. 우리의 몸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 공간, 일상생활의 조직과 규제에 의해서 훈련되고 형성된다(수잔 보르도, 1993:117-118). 푸코가 주목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의해 모든 개인이 기업가적 주체가 되어 통치성의 내재화를 통해 자기 통제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가하는 비하와 비난의 확대 재생산은

이제 여성혐오라는 단어가 그리 혐오스럽지 않을 정도이다.

렛미인의 지원자는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민으로 낙인 되고, 사회적 통제가 직접 행해지는 장으로서의 몸에 대한 통제는 신자유주의와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외모산업에 의해 점점 더 획일적인 외모와 몸을 강요하는데, 과체중 여성과 획일적인 외모의 기준과 다른 여성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적어도 자기관리에 부족하고 게으른 여성으로 비하되고 부정된다.

여름이면 나는 덥고 땀 투성이었으며, 사람들이 내 땀을 내가 똥똥하다는 증거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외모에 하도 끔찍한 기분이 들어서 내 몸에 대한 신경을 끊었다. 이와 같이 여자들이 느끼는 심한 치욕감은 모든 여자들이 얼마나 신체적 수용성에 대한 가부장적 기준을 내면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바트키, 1998: 230)

'이국주, 그녀는 예뻐다'[OSEN]라는 기사에 600여 개의 댓글 중 절반이 살을 빼라는 악플이었다. 그녀의 인기가 그녀의 몸에 대한 평가를 압도할 수 없었다는 것은 신자유주 통치성에 실패한 부족하고 게으른 여성이라는 평가이고 신체적 수용성에 대한 가부장적 기준의 내면화가 이토록 강력하다는 증거이다.

'예쁘지 않은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못 생긴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가슴 없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나이든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등식에 무엇을 대입하든 그것은 오직 하나의 간결한 명제,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에 있다'는 단순한 명제가 된다. 오구라 치카코는 <<섹슈얼리티의 심리학>>2001 속에서 여성의 사춘기를 '자기 신체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쾌락의 도구이며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라고 정의했다.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될 때 사람은 '여자'가 된다. 거기에 연령은 관계하지 않는다.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은 '여자'가 아니게 된다.(치즈코, 2010: 247-248)

오락프로그램에는 예쁘고 가슴 나온 여자와 비교하여 예쁘지 않고, 가슴 나오지 않은 여성이 등장한다. 이국주에게 달린 악플의 절반이 '똥똥하다', '살 좀 빼라'였다는 것은 개그우먼으로서의 그녀가 아닌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명제 때문에 비난이 자연스럽다. 물론 남성중심시각을 내면화로 인해 이러한 비난이 새삼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악플과 비난에 반대와 우려와 분노를 보내는 사람들조차 이국주형 몸을 수정해야 할 몸이라는 생각이 여전하다면 남성에게 의한 대상화, 타자화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4. 나가며 : 대항으로서의 분석 작업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것이지만, 역사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사회의 법과 신념을 내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한 법과 신념들은 그 자체로 문화적 변동에 지배되지만, 역사적으로 가부장제의 기초를 놓아 왔다. 미첼은 따라서 정신분석학은 가부장제 사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분석학은 페미니즘에 필수적 이론이 될 수 있다(초두리, 2006: 42).

정신분석학이 가부장제 사회를 분석하는 점에서 페미니즘에 필수적 이론이라면 미디어 속 여성 재현을 들여다보며 가부장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것도한 페미니즘의 한 활동이고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서 대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의미화와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은 '실제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데올로기란 떨쳐버려야 하는 하나의 허구(혹은 허위위식)가 아닌 투쟁의 장소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프록터, 2006: 94). 젠더이분법을 낫설게 만드는 작업,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낫설게 만드는 작업 그래서 익숙했던 미디어의 재현들을 낫설게 만들고, 낫설었던 재현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투쟁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권은선, 2012, 신자유주의 문화 논리와 여성의 정체성, 영상예술연구, p77-96

데이비드 버킹엄, 기선정 외 옮김, 2003, 미디어 교육, jNBook

샌드라 리 바트키, 윤희녕 옮김, 1998, 푸코, 여성성, 가부장적 권력의 근대화,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손희정, 2004, 한국의 근대성과 모성재현의 문제:포스트 뉴웨이브의 공포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쇼히니 초두리, 노지승 옮김, 2006, 페미니즘 영화이론, 앨피

수잔 보르도, 조애리 옮김, 1993,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2010,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윤보라, 2015, 남성성 위기와 '여성혐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2015 한국여성학회 제31차 추계학술대회, 한국여성학회

제임스 프록터, 손유경 역, 2006, 지금 스텐다트 홀, 앨피

조은, 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제 26권 1호 p69-95

원선아

1. 문제제기

한국여성운동은 1980년대에 스스로를 부문운동으로 위치 지으며 기층 여성을 운동의 주체로 주목하였다. 90년대에는 여성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차이의 정치'를 주장했던 세력들이 현실적으로 연대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가부장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를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며 그 주체는 여성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연대 혹은 국제개발협력사업²⁵⁾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여성운동의 국제교류활동은 1959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의 창립과 더불어 시작된다. 진보여성운동의 대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국제 여성연대에서 가장 획기적인 계기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였다.²⁶⁾ 이후 여연과 여협 모두 국제 연대 활동을 이전 보다 활발하게 펼치지만 여성이슈를 제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개발에서의 여성이슈는 1970년대 등장하였는데, UN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였고 1979년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여성행동강령'을 만들면서 성주류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0년 들어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5) ' '는 '국제개발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국제연대는 주로 국제 이슈들을 중심으로 담론을 형성하거나 정부나 주류 단체들의 교류 사업으로 해석했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ODA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연대 사업으로 해석했다.

26) "북경대회는 이전에 정부대표 소수가 참여하던 여성대회와는 달리 처음으로 한국 여성 NGO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계여성대회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연합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12분야의 의제는 여성연합이 이미 다루어 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여성운동의 보편성, 대중성이 입증되었다."

강남식, 윤정숙, 남인, 1999, <80-90년대 여성운동의 평가와 세기전환기 여성운동의 전망과 과제> 중

이하 MDGs)에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3항)가 포함되었고 파리선언(2005년) 및 아크라 행동강령(2008년)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성평등과 개발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2015년을 맞이하며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Post-2015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 9월 UN은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발전 프레임을 구축하였다.²⁷⁾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2010년 OECD/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으로 본격화 되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젠더 혹은 성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은 2009년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이뤄진 '동료검토(Peer Review)' 보고서에서 시작된다. '동료검토' 보고서는 젠더와 환경 등과 같은 범 분야(Cross-cutting)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이 낮다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젠더 등에 대한 비중은 전체 ODA 예산 중 통계로 잡기도 어려울 만큼 적다고 알려져 있다.

국제담론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과 형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여성들의 삶의 주체화를 이끌어 내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장은 최근 변화되고 있지만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젠더',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여성주의적 고민이 부족하다면 형식적 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의 비율을 높인다 해도 오히려 상황을 왜곡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여성주의적 주체가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연대의 중간 역할을 하는 단체 및 활동가는 또 어떤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주로 그동안의 여성주체 담론에 대한 논의와 현재 여성주의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이하 두런두런)²⁸⁾'의 사업에 대한 비판을 해보고자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두런두런의 여성주의적 사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기도 하다.

27) 2015 9월 UN은 총회에서 2030 개발의제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목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targets을 확정하였다. 목표5에 젠더 평등과 여성 권한(역량) 강화가 있으며 9개 과제를 채택하였다. 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지표와 국내지표가 있는데 현재는 국내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8) 두런두런은 현재 필자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2. 기존의 여성주체 담론에 대해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은 '차이'에 주목한다. 근대의 사상은 이성/감정, 남성/여성, 서양/동양 등 이원적인 대립 항을 설정하고서 이성, 남성, 서양 등에게 중심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해 왔다. 즉, 서구에서 통용되어 온 계몽주의적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 사실은 배타적 동일성에 근거한 서구 이성에 숨겨진 억압의 논리이며, 이성은 인간의 보편적 해방과 이성적 사회를 건설하는 수단이 아니라 억압과 지배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후기 구조주의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후기구조주의는 이러한 중심을 해체하고, 이분법적 논리를 상대화함으로써 지배 체제나 남성에게 의한 여성 차별,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등을 비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주체의 위치를 갖게 되고, 여자다움의 양식을 취하게 되며, 전반적인 사회 권력 관계들의 연결망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갖게 되는 시대적 특수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이도티는 탈구조주의가 성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이를 존재론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성차는 다른 차이들보다도 근본적인 것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이도티가 주장한 유목적 주체는 주체성을 구성하는 계급, 인종, 젠더, 종족, 나이, 삶의 스타일, 섹슈얼리티 등 차이의 다양한 축들의 동시작동을 포착하면서 페미니즘적 여성주체를 상상해내는 하나의 방식이다.²⁹⁾ 브라이도티는 주체를 존재(being)가 아니라 되기(becoming)의 개념으로 사유한다.

『경계 없는 페미니즘』을 쓴 모한티는 “서구의 시선 아래”는 제3세계 여성들에 관한 서구페미니즘의 담론들을 비판하면서, 통문화적 페미니즘 학문을 향한 급진적 탈식민화를 요구한다. '여성'은 보편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단일한 본질로 규정되거나, 혹은 공통된 억압과 차별의 경험으로 함께 묶을 수 있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계급, 인종, 세대, 성적취향, 사회문화적 문할 등이 교차하고 있는 '다중적 주체'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화의 맹공을 정면으로 받은 사람들은 전 세계, 특히 제3세계/남반구의 소녀들과 여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 없는 페미니즘, 경계를 넘는 페미니즘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부정의를 파헤쳐야 한다.³⁰⁾

스피박은 서구 페미니즘이 계급, 종교, 문화, 언어, 국적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을 대변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차이'의 문제를 좀 더 민감한 방식으로 확장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스피박은 서구의 지성인들이 비서구 주체들을 문화와 언어, 역사를 박탈당한 채 말없이 굳어있는 서구의 재현 대상으

29) 부라이도티, 박미선 옮김, 2004, 유목적 주체, 여이연

30)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 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로 그려내며 억압받는 집단을 위해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죽이는데 공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피박은 피억압자들을 위해 말하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배우기 위해 끈기 있게 학습할 것”을 당부한다.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서발턴이 죽을힘을 다해 말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힘을 박탈당한 특정 집단들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화 행위가 재현의 지배적인 정치체계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거나 인식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발턴 여성은 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성을 갖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31)

한국에서도 여성주의 주체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고갑희(1999)는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이 계급적, 인종적, 민족적 주체의 문제와 어떻게 만나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우리 논의를 여성/남성이라는 젠더에서 여성주의적 주체라는 것으로 옮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화(2004)는 3세대 여성주의자의 현장 개념은 2세대 여성주의자의 차이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현존하는 차이를 정교하게 포착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3세대 여성주의는 현장 개념을 통해, 차이의 보존이나 승인이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는 현실 메카니즘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차이의 생산적 흐름을 전유하고 그 생산의 흐름을 여성주의적 방향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해외 현장 사업의 여성주의적 주체 형성을 위해 - 두런두런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를 ‘지구화’라는 명칭으로 시대규정을 하게 된 이후,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서구 중심적, 성차별적, 동성애 차별적, 인종차별적 지배체계에서 배제된 타자들, 소수자들, 비체들이 대항지구화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각되어 왔다.(태혜숙, 2007;34) 제3세계 여성들은 전 지구적 세계화의 영향을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받고 있다. 두런두런은 이러한 제3세계 여성들을 새로운 주체로 지목하며 ‘글로벌 시장 경제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여성들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정치, 사회, 문화적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³²⁾ 설립되었다.

두런두런의 해외 현장 사업은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여성

31) 모든, 태혜숙 번역, 스피박의 하위주체가 말할 수 있는가, 스피박 넘기, 2~3장

32) 2011, 두런두런 창립선언문

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네팔에서 진행되는 '베이커리 교육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 하나는 캄보디아 여성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젠더카페-캄보디아 취약계층 여성들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이다. 네팔 베이커리 교육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베이커리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베이커리 카페를 설립 여성들의 취업까지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후 장기적으로는 빵공장을 설립 여성들의 교육과 취·창업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여성노동자, 가사노동자, 철거피해여성,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네트워크화를 시도하였다.³³⁾ 각 분야별로 3달에 1번, 1년 총 12회의 모임을 조직하였으며 각 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정폭력 등 여성, 사회, 정치 이슈, 각 직종 이슈 및 조직화를 논의하였다. 1년 사업을 마치며 4개 그룹 참가자들의 여성캠프를 조직하여 그룹 간 소통을 도모하고 모임을 통한 각 그룹별 개인별 성장과정을 나누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연대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후 모임의 지속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두런두런이 진행하고 있는 혹은 진행했던 네팔의 베이커리 교육 사업과 캄보디아의 여성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³⁴⁾

1) 여성의 역량강화? 전통적 성역할 유지에 대한 고민

두런두런이 네팔에서 베이커리 교육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현지 여성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지 여성들의 삶은 지역성, 민족성 그리고 전 지구성의 교차 속에서 인종, 여/성, 계급, 종교 등의 다중의 억압과 착취를 겪고 있다.

1980년 이전까지는 개발 기획에 있어서 젠더의 관점이 전혀 개입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개발 논의는 대체로 성 맹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는 결과가 주목되었고,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신들이 처한 가부장적이고 정치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항할 필요가 인식되면서 여성의 역량강화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새로운 접근적시도가 되었다.³⁵⁾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개발되지 않은 국가 중의 하나로³⁶⁾ 정쟁, 갈등, 지리적

33) 사업은 1년 사업으로 2014년에 진행되었으며 현지 수행단체는 GADC(Gender and Development in Cambodia) 였다.

34) 이 글에서 논하고 있는 두런두런의 2개 사업에 대한 비판 및 점검은 개인적 판단이며 단체에서의 검토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음을 밝힌다.

35) Gita Sen, Garen Grown, 1988, Development, Grises and Alternative Visions: Third World Women's Perspectives

이혜정, 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 자료집 1-15, 재인용.

위치 등으로 인해 개발이 늦어졌으며 특히 1994년 이후 내란이 10여 년간 이어졌다. 그 결과는 네팔 인구의 30%가 최빈층이며, 45%는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국가의 빈곤은 매년 30여만 명의 젊은이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게 만들었다. 또한 네팔은 조혼, 차우파디,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성 불평등한 전통적 문화와 교육 및 취업기회 부족 등이 여성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3-2015년에 따르면 네팔 정부와 UNDP(유엔개발계획)가 공동 분석한 자료에서 '고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직업교육훈련, 생산성 향상 교육프로그램훈련, 기업가정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2014년 네팔 현지 사전조사³⁷⁾ 당시의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낮은 교육수준과 기술 부족으로 단순 노무직을 주로 택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지만 또다시 교육과 기술의 부재로 다시 단순노무직을 선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프레이저(Fraser, 2008; 2013)가 제기했던 불평등한 분배, 정치적 차원의 대표 불능, 문화적 차원의 성-신분적(gender) 위계질서 등이 긴밀히 맞물린 채 여성의 위치성은 유동하고 있었으며, 젠더 배제와 포섭의 정치, 위계화 및 계층화의 구조를 통해 지속되고 재생산되는 성차별적 현상(이나영, 2014;38)이 네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런두런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직업 기술교육'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은 현지 노동시장 현황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고 여성들의 노동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또한 부재했다. 게다가 교육 내용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봉제', '베이커리' 등은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또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성과'라는 목표 아래 일자리 창출만을 고려하고 그 결과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지게 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기간이 1년 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 이러한 결론 또는 비판을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2) 현지 사업의 여성주체에서 여성주의적 주체성으로

여성과 여성들이 한 개인 혹은 집단으로 인식과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정

36) 2015년도 HDI 지수는 145위이다. HDI(Human Development Index)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DR) 중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 중 한 항목이다.

37) 네팔에서 '네팔 빈곤여성을 위한 제과제빵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 전인 2014년 현지 사전 조사를 다녀왔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설문에 응한 여성들은 주로 18 - 40대였다.

치, 경제, 문화,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배제되고 소외된 상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갑희, 1999;20) 이런 면에서 두런두런의 사업은 여성을 주체로 하고 있다. 네팔 베이커리 교육 사업의 경우는 수행단체가 여성단체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며 교육의 대상이 여성들이며 교육을 받은 후 베이커리 카페에서 직접 노동을 하는 것도 여성들이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수행단체도 여성단체이며 사업 참여자들도 모두 여성들이다.

네팔 베이커리 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현지 사업 수행단체와의 지속적 논의 등을 거쳐 사업을 결정하였고 현지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지에서 사업의 내용 및 방향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2개를 조직하였는데 하나는 사업 수행단체 중심의 운영위원회이며 하나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배우며 일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네팔의 경우와 달리 캄보디아에는 현지에 한국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현지 중심적 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현지단체의 업무추진이 한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많아 현지 단체의 운영방식을 인정하고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현지의 운영진의 생각과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런두런의 사업은 일면 여성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면이 엿보인다.

로우랜즈(Jo Rowlands)는 역량강화란 의사결정에의 참여 이상의 것이며 자신을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인식하는 과정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⁸⁾ 영(Young, 1993)은 여성운동조직들은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여성들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거나 조직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영숙, 2012;64에서 재인용) 하지만 두런두런의 사업에서 여성주의적 주체성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여성이 주체라고 해서 모두 여성주의적 주체는 아니다. 오히려 반여성주의적일 수도 있다. 여성주의적 주체라는 개념은 주체 생산의 가능성과 그 주체 생산이 정치성을 담보하는 그런 주체, 즉 개인적 주체와 집단적 주체 사이를 오가는 그런 주체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에서 보듯 개인 여성으로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주체, 즉 여성주의적 주체를 향할 때, 기존의 여성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주체가 된다.(고갑희, 1999;25) 장기적으로 두런두런의 사업은 여성 주체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성주의적 주체를 향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시기이다.

38) Rethinking Empowerment, 2002, p.11,

, 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 자료
집 중 재인용

3) 하위주체와 지식인

현지의 여성주의적 주체성에 대한 고민에 이어 현지와 연대하는 한국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은 어떠한 주체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스피박은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를 통해 서발턴들이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식인들의 역할의 한계를 비판한다. 하지만 지식인의 재현 작업이 지식인의 물질 토대에 따른 제한된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임해야 여성주의적 주체 생산의 길도 열 수 있다. 하위주체와 지식인은 함께 다언어로 말하기를 실천한다. 하위주체의 여성주의를 지식인의 언어로, 지식인의 여성주의를 하위주체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태혜숙, 2007:49) 또한 제3세계 여성들을 타자화 시키면서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주체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둘 다 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안의 타자성을 발견하고 확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허성우, 2015. 12.16 여성운동 수업 중) 앞으로 하위주체의 말이 제대로 들릴 수 없도록 하는 지배담론체계의 구도를 밝히고 새로운 나와 현장 여성들과의 상호교차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성주의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장기적 전망으로 현지와 함께 말하고 행동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4. 나오며

국제사업을 하든 국내사업을 하든 국제담론과 관계없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국제사업을 할 때는 그 담론들에 더 영향을 받게 된다. 두런두런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금씩이라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의 여성 비율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늘고 있다. 즉 국제담론의 영향 - MDGs의 세 번째 목표 및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한 것이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쳤었고 앞으로는 SDGs의 목표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젠 한발 더 나아가 단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여성주의적 주체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국제개발협력이 여성주의적 주체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현지 자체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전통 속에서 뿌리내려진 삶의 양식과 지식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³⁹⁾ 여성들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들, 연대를 가로막는 인종, 계급, 피부색, 이성애중심주의 등과 같은 경계들과 그 속의 차이들을 인식하고, 이런

차이와 특수성을 알아가는 속에서 우리들은 연계성과 공통성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ODA 사업은 여성주의적 주체를 논하기에 앞서 여성 주체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기초한 '기회' 평등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은 ODA 사업을 하나의 시장으로 분석한다. ODA 사업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는 이유는 베트남이 한국의 경제적 전략 우선 국가라는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제3세계에 대한 원료 공급과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개념으로 도구화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틀이 대부분 개량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업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가부장제와 젠더관계를 새롭게 조각하는 방식과 초국적 자본주의와 국가(정부)간 관계 속에 유동하는 여성의 위치를 분석하기 위해 위치성과 교차성, 정의의 개념을⁴⁰⁾ 네팔의 상황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제3세계 여성주의적 주체를 논의하는 데 있어 적합한 분석틀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더구나 이에 대한 기존 담론의 논의와 고민 역시 아직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이 부분은 여성학 수업을 받는 동안 또한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민의 주제가 될 것이다.

39) , 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 자료집 1-15.

40) 이나영, 2014, 한국사회의 중층적 젠더불평등: '평등 신화'와 불/별하는 여성들의 위치성, 한국여성학 30(4)

참고 문헌

고갑희, 1999, 여성주의적 주체 생산을 위한 이론1, 여/성이론 제1호

태혜숙, 2007, 대항지구화와 여성주의 주체생산 모델, 여성이론 17

이혜정, 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 자료집 1-15

이나영, 2014, 한국사회의 중층적 젠더불평등: '평등 신화'와 불/별하는 여성들의 위치성, 한국여성학 30(4)

이상화, 2004, 지구화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 차이의 존재론과 공간성의 사유, 한국여성철학 제4권

로지 부라이도티, 박미선 옮김, 2004, 유목적 주체, 여이연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 문현아 옮김, 2005, 경계 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윤나현

1. 지역과 여성

질문1. 그녀들은 누구인가



<사진1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동구 가 선거구
기호4번 김종호 후보 선거운동원들, 2014, 6, 14>

언제부터였을까. 선거운동 기간이면 같은 옷, 같은 모자, 같은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선거 기간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목 지점, 동네 상가, 길거리를 누비며 선거 운동을 한다. 때로는 후보 수행을 하고 후보 유세 때는 후보를 연호하며 또한 연고자에게 후보 지지를 위한 활동, 전화 홍보 등을 한다. 길거리에서 이들은 특히 빛난다.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후보를 소개하고 연락처를 받아내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보수 정당, 진보 정당 할 것 없이 유급 선거운동원의 대부분은 그 지역 여성들, 그 중에서도 '아줌마'들이다. 그녀들은 대체 누구일까?

2014년 5월.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던 선배의 선거캠프에서 선거 사무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선배는 남성이었고 진보정당 후보였으며 첫 출마였다. 이전부터 진보정당 선거지원활동을 한 적은 있었지만, 한 후보의 선거캠프 일정 기간 내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고 직접 선거 캠프 운영을 하게 되었다. 후보등록 후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공약을 개발하고 연고자 데이터를 정리한 후 예비 공보물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본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 함께 할 선거운동원들을 소개 받았다.

구의원 후보캠프 8명의 유급선거운동원. 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모두 여성들이었다. 선거운동원들로 추천된 이들은 지역에서 흔히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자생단체, 또는 시민단체 및 주변 연고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해당 선거구에 살며 평소 동네에서 자녀의 학교, 자원봉사단체, 친목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 발이 넓다고 평가된 이들이다. 정확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것은 대부분 선거캠프의 공통점일 것이다. 필자가 선거운동을 했던 인천동구의 경우, 그간 후보의 활동이나 연령을 고려하여 젊은 초등 학부모 층에서 우선적으로 추천 받은 것이 다른 선거캠프와는 다른 특징일 수 있다. 어쨌든 본 선거기간을 앞두고 이들과 만나 사전모임을 통해 후보에 대해 소개하고 선거캠프 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한 후, 각자가 선거운동 가능시간을 확인하고 본 선거기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3일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하루 8시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장**	설**	박**	이**	유**	김**	최**	김**
나이	47세	41세	45세	42세	55세	53세	49세	56세
직업	요양 보호사/ 식당	주부 /식당	자영업 (남편)	공장	협동 조합	마트	김밥집	공장내 식당
자녀 연령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성년	성년	성년	성년
이전 선거 경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한나라당)	있음 (한나라당)
정당 가입	선거 이후 정의당 가입	X	X	선거 이후 정의당 가입	정의당 당원	X	X	X

<표1. 8명의 선거운동원 기초정보>

질문2. 그녀들은 학원비를 벌러 나왔는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먹고 자고(오침)를 같이 하고 당선이라는 분명한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지 선거 캠프는 아주 빠르게 '식구', '가족'이 되었다. 선거캠프는 후보, 선거사무장, 회계담당자, 그리고 선거 경험이 다수인 2명의 팀장(자원봉사자)와 그리고 동네에서 이들을 추천해주신 3분의 자원봉사자, 유세차 운전기사, 그리고 8명의 유급 선거운동원들로 구성되었다. 8명은 2명의 팀장과 함께 초등 학부모 조, 성년 자녀를 둔 조로 운영했다. 필자는 선거사무장을 하면서 선거캠프에서 유일한 여성간부라는 이유로 여성들로만 구성된 조 운영을 직접 하며 그녀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곁에선 본 그녀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후보와 선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음에도 놀라우리만큼 후보에 대한 애정을 빠르게 가졌다. 점점 그녀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니겠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수의 선거경험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의 당직

자부터 여성단체 간부들까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었다. 이것은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에 최소 2~3번은 “아줌마, 그거하면 얼마 받아요?”, “당선되면 보너스 받아요?” 등 돈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겠냐는 시선을 받아야했다. 필자 역시 겪었던 이 경험은 너무나 불편했고 이러한 고민 끝에 두 가지 이상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 번째, 이러한 질문은 많은 경우 남성들에 의해 여성 선거운동원들에게만 ‘농담처럼’ 던져졌다. 선거운동원 자체가 여성들이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경험을 여성들이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자원봉사를 하는 남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것은 전무하다. 또한 정치혐오가 심한 한국사회에서 선거운동원들을 향한 싸늘한 시선, 무관심, 적대감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는 선거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비하,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왜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라고 열 번도 넘게 받아칠 수 있을 것 같은 변죽 좋고 강인한 그녀들이 이 질문 앞에서는 많은 경우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물론 이것은 선거운동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취하는, 선거기간엔 누구에게라도 잘 보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보이게 되는 방어적 해결방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돈 받고’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부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들의 선거운동 참여 동기를 사회적으로 맥락화 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여성들의 노동이 예전엔 ‘반찬값’으로 읽혔다면 요즘은 ‘학원비’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운동원들은 사회적 시선에서 봤을 때 집단적으로 ‘학원비를 벌러 나온 아줌마’들로 가장 간편하게 의미화 되었다. 법정 선거운동일 13일, 하루 일당 7만원, 총 91만원은 여성이 임시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치곤 꽤 고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선거가 없는 해가 거의 없다시피 한 한국사회의 선거일정 속에서 이러한 대량 여성 임시직은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선거운동원들을 공개 채용하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다. 공개채용을 통해 “혈연, 지연 등의 인맥중심의 선거운동을 통해 끼리끼리 지역일꾼을 뽑는 방식 때문에 당선 후에 특정 세력들을 위한 지방의원으로 전략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선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봉사할 일꾼을 스스로가 선택, 다른 유권자들에게 추천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구태의 선거풍토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⁴¹⁾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하루 8시간, 대부분을 길거리에서 해야 하는 이 일이 그리 편한 일만은 아니다. 또한 ‘(누구누구)

41) , 2014. 5. 13, 동네북 정재현 후보, 선거운동원 모집 눈길

의', 또는 '(어디어디)'의 선거를 뛰고 있다는 것도 가까운 사람들을 비롯해 동네에 알려진다. 남성과 다르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생활권으로 하고 그녀들이 추천되었던 이유인 자신이 갖고 있는 넓은 인맥을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 사실을 알리고 지지 호소를 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나서는 그녀들의 선거운동 동기를 '반찬값', '학원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 이유가 '돈 때문'이라 치더라도 이들이 다른 일이 아닌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이유들이 궁금했다. 물론 이들은 [표1]에서 보듯이 선거운동을 했던 정당의 당원도 대부분 아니었고 정치의식을 측정할 수 없으나 선거초기에 진행한 선거교양을 통해 알게 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들은 13일간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운동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맡은 일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보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 선거운동원들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역할-피케팅, 상가홍보, 전화 홍보 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방식에 대해 피켓 외에도 유권자에게 후보가 더 눈에 들어 오게 하는 물품 개발을 하거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집에 가지 않고 선거사무실에서 다 같이 돌아가며 준비해서 식사하자는 등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거나 캠프 운영에 대해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동네북 정재현 후보, 선거운동원 모집 눈길

전상천 junschi@kyaengin.com 2014년 05월 13일 화요일 제0면

작성 : 2014년 05월 13일 18:06:24 화요일

댓글 0       단축url

폰트 + -   

"부천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축제처럼 함께 할 선거운동원을 찾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시의원 후보가 선거운동원을 공개 모집, 눈길을 끌고 있다.

부천시의원 가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2-나' 동네북 정재현 후보는 오는 15일 5시까지 6·4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선거운동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2일 시작되는 선거운동에 함께 할 수 있으면 되고, 선거법에 따라 15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 하루 7만 원 이하의 임금을 드릴 수 있다고 채용과 근무조건을 제시했다.



<사진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 공개 모집을 한 부천의 정재현 후보 2014, 6.4 >

질문3. 얼마나 많은 그녀들이 있을까?

8명의 선거운동원들, 그리고 다른 선거캠프와의 연합유세 등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그녀들을 보며 궁금해졌다. 이렇게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공식적으로 이들에 대한 누적집계나 통계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유급선거운동원 수를 놓고 추정했을 때, 인구 7만 5천의 작은 자치구인 동구에서 2014년 지방선거는 대략 300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유급선거운동원이 여성운동원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한국사회에서 선거라는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부터 국회의원, 지방선거, 교육감선거까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보궐선거를 포함하여 거의 매년 가깝게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자료나 분석이 없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
유급선거 운동원 수	3명 × 33명 = 99명	6명 × 10명 = 60명	13명 × 8명 = 104명	3개 정당 × 11명 = 33명
합계	296명			

<표2. 인천 동구 선거운동원 수 : 후보 × 법정 유급선거운동원 수(추정), 2014>

그렇다면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일까? [표2]에 따라 단순 계산을 적용해 보았을 때, 296명, 1인 910,000원을 적용했을 때, 지난해 인천동구의 유급선거운동원비는 최대 269,360,000원이다. 이것을 확대시켜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비용을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법정 선거운동비용이 정해져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후보가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은 50% 보전된다. 또한 ①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②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③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된다. 이것은 세금으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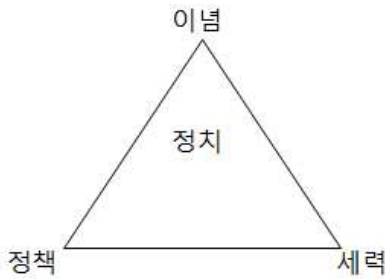
2. 여성과 정치

질문4. '뭔가'가 뭘까?

이렇게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며 진행되는 '선거'라는 가장 정치적인 장에서 여성들의 정치의식은 성장하고 있을까? 더불어 이것을 여성들의 정치참여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여성은 어떨 때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가? 참여하게 되는가? 여성의 정치의식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과정에서 선거는, 선거운동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여성 개인의 선거운동 경험은 무엇을 남기는가? 참정권 획득 이후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여성이 직접 후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정치에 가깝게 접근한다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집단적 선거운동 경험은 여성을 정치세력화 할 수 없을까? 여성정치에서, 현실정치에서 그것이 알고 싶어졌다.

이 많은 질문을 남긴 채 선거가 끝났다. 낙선을 했고 패배의 아픔은 쓰렸지만 첫 출마에 진보정당 후보가 10%를 넘긴 것, 그래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 8명의 선거운동원을 포함하여 함께 선거 캠프를 했던 사람들과 우리는 1년 가까이 친목회를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동네에서 만나고 카톡을 통해 자녀의 임용고시 합격소식, 자원봉사활동 소식, 경조사 등을 챙기며 끈끈함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8명의 선거운동원 중에서 3명이 내가 일하는 여성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가입경로는 아주 단순했다. 선거 캠프에서 친해지고 함께 했던 내가 좋다며 여성회에 왜 가입하라고 안 하나면서 먼저 가입을 요청했다. 물론 몇 차례의 모임 후 이들의 반응은 "여성회는 '뭔가' 좀 어렵다"고 하며 활동력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이들의 일상은 참 바쁘다. 공장이나 마트, 가게 등에서 일을 하고 학부모회 등 임원을 하며 친목회에서도 임원활동을 한다. 가까운 사람들의 경조사를 챙기려 애쓰며 아이들을 키운다. 정말 바쁘게 산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1년 가까이 지켜보며 사실 나는 그녀들이 여성회가 '뭔가' 어려웠던 것처럼 나 역시 그녀들이 '뭔가' 어려웠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유범상 교수는 [필링의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정치의 삼각형 이론을 통해 정치를 설명한다.



“정치는 다른 세력들을 중재해 서로 동의하는 정책을 만드는 이상한 놀이다. 따라서 정치를 잘 이해하려면 정책과 세력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세력을 이해하려면 그 세력의 이익, 목표, 비전, 꿈 등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간단하다. 그의 이념을 보면 된다. 이념이란 내적인 논리가 내재된 일관되고 체계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일종의 나침반이다. 따라서

어떤 세력은 자신의 나침반에 기반해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정치가 자신의 행위 결과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세우려면 그 세력, 그 세력이 갖고 있는 나침반인 이념, 그리고 그 나침반에 기반해 만들고 싶은 정책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제대로 중재할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세력과 이념, 그리고 정책을 정치의 3요소, 정치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다”⁴²⁾

내가 경험한 선거, 일상정치에서 이 이론은 맞으면서도 틀리다. 우선 각각의 세력이 존재하며 이 세력들은 특정한 이념을 바탕으로 갖가지 정책을 생산한다. 이 3가지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대끼며 사는 현실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선거기간에는 ‘표’가 될 만한 정책이면 이념과 상관 없는 공약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이 그러지 않았던가. 그리고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정치 혐오주의, 탈 정치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념과 정책, 그리고 세력의 작동은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 결과 다양한 선택들이 벌어진다. 그 중에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바로 ‘관계’의 정치였다. 선거에서, 정치판에서 가지고 있는 세력, ‘조직’이 얼마나 되느냐(특히 보궐선거)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일상적 ‘조직관리’가 존재한다.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생활공간인 지역, 그 지역을 토대로 한 이러한 ‘조직관리’의 영역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역할과 경로를 통해 일상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학연(동문회), 지연(향우회), 혈연(종친회), 취미(산악회, 조기축구회) 등을 기반으로 한 남성들의 각종 ‘회’조직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위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지켜본 동네에 발 넓고 영향력 있는 그녀들은 자신들만의 관계망을 가지고 그 관계망을 지키고 넓히려 애쓰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안에서 얼마나 정치적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야기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관계망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이 관계망 때문에 그녀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42) , 2014, 필링의 인문학, 논형, p. 111

3. 지역, 여성, 정치

질문5 . 이들과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나현 : 언니 어디세요?
언니 : 나 지금 송현시장.
나현 : 왜요?
언니 : 누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와서 도와주고 있어. (중략.....)
나현 : 언니 제가 대학원 과제 때문에 작년에 선거했던 거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언니 작년이 첫 선거셨어요? 아니었죠?
언니 : 어어~~ 그 전에도 했지
나현 : 그럴거 같았어요. (중략.....) 언니 근데 그 때랑 작년이랑 달랐던 게 있어요?
언니 :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됨)는 누가 부탁하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거야. 미안~~
나현 : 아 언니가 왜 미안해요ㅠㅠㅋㅋ 그럼 작년엔 달랐어요?
언니 : 작년엔 정의당이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았지. 그리고 ○○언니 (이 언니와 친한 여성회 회원, 작년엔 자원봉사로 결합)는 그전에 나보다 더 많이 했어~ 거기다 물어봐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분과 전화통화를 했다. 앞서 얘기한 여성회에 가입하게 된 3명 중에 한 분이다. 이 분은 여성회에 가입 후, “여성회는 왜 이렇게 교육이 많냐, 일은 많은데 돈은 없어서(돈이 안 되서) 어떻게 하나,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라고 하시는 분이다. 언니 덕분에 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동네를 사랑하고 주변에 관심이 많으며 부지런한 여성선거운동원들, 이러한 지역여성들과 지역여성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그 경로를 찾지는 못했다. 다만 내가 찾은 문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선거제도, 선거풍토에서 여성의 선거경험은 너무나도 ‘탈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진보정당에서조차 이들의 역할은 연고자 소개를 제외하곤 단순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때론 정당기호와 후보이름이 박힌 옷을 입은 것만 빼면 선거현수막과 다를 바 없으며, 동네를 부지런히 다니며 인사 잘하는 게 중요하고 ‘후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에 가깝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목격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동네에 살아오며 가지고 있는 삶의 기억들을, 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속속히 알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상가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물을 얻어 마시며 후보를 뽑아달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중앙권력이 강력하고 정치판이 다이내믹한 한국사회에서 지역정치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역여성회가 지역 여성들과 일상의 정치를, 선거를 해 나간다는 것이 정말 현실 가능할 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다만 정치가 일상을 바꾸고 권력관계의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녀들과 함께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 권력과 제도 권력 사이에서 지역여성회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녀들과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좀 알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들은 정책이 어렵고 지역여성회는 관계가 약하다. 이것이 모아지면 새로운 시너지와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삶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동네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일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마음을 모을 일은 무궁무진하다.

2014년 여름보다 뜨거웠던 봄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심어주었고 그 안에서 마주한 수많은 질문들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나름의 작은 경로들을 밝혀줄 것이다. 내일이 1년을 맞이하는 '○○○' 모임이다. 낙선 1주년 기념으로 다 같이 술잔을 들어야겠다. "3년 뒤엔 당선을, 여성에게 정치를!! 짠~"

수원여성회의 보육운동의 역사

: 평동어린이집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전경숙

1. 들어가며

1989년 3월에 창립한 수원여성회는 26년 된 여성단체이다. 몇몇의 여성 활동가가 1988년부터 일 년 기간을 준비해서 만든 수원여성회(당시 수원여민회)는 그간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수원지역에 자리매김을 해왔다. 수원여성회가 다양한 여성 지위향상과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한 활동을 해오면서 함께 해온 것이 보육운동이다. 1991년 비영리민간탁아소 '옹기종기놀이방'의 개원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영아전담탁아소 '올망졸망놀이방', 1997년에는 경기도능력개발센터의 직장탁아소 '신나는 어린이집', 1998년에는 시립 평동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였다.

2015년에는 평동어린이집을 위탁받지 않으므로 수원여성회의 24년의 보육운동의 역사와 18년 동안의 시립평동어린이집의 역사를 마감하려고한다. 시립평동어린이집을 마감하면서 수원여성회의 어린이집이 수원지역에서 어린이집으로서는 어떠한 자리매김을 했는지, 어떤 연대활동을 했는지, 보육활동을 하는 보육교사들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체 보육운동의 흐름 속에서 수원여성회의 어린이집 혹은 교사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2. 본론

1) 수원여성회 어린이집

① 옹기종기 놀이방(1991년5월 ~1998년 2월)

수원여성회는 날로 심각해 가는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문제 및 방치아동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원여민회(현수원여성회) 탁아소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

었고, 일 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담당주체를 세우고 탁아소설립을 위한 모금바자회 등의 모금사업과 탁아소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 작업 등을 진행했다. 탁아소는 수인선 협궤열차가 지나다니는 수원 서쪽외곽이고 저소득 밀집지역인 고색동에 마련되었고, 이름은 공모하여서 '용기종기놀이방'이라고 지었다.

'용기종기놀이방(이후 용기종기)'은 유아중심의 탁아소로서 아이들 교육은 기존에 있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의 프로그램을 탁아소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였고, 매달 자모회를 통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운영에 대해 논의 하였고,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어린이집 행사를 통하여 부모와 어린이집 간 결속력을 높였고 재정마련사업을 위해 매년 일일차집, 주점 및 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분들의 참여와 격려를 이끌어 되었다. 그 당시 저소득 지역의 탁아소 연대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연대활동을 통해 수원지역의 탁아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었던 '영유아보육법제정' '보육의 공공성 확보' '아이들의 보육 환경개선'등 보육 관련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힘차게 벌였다(수원여성회 15주년 자료집,2004:18).

용기종기 어린이집이 처음 자리 잡았던 곳은 고색동 큰 말이었다는데, 가건물에 슬레이트지붕이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아이들을 돌보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는데, 바닥공사와 난방공사를 하고 들어가서는 수원지역 단체 청년들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화장실, 물 시설, 미끄럼틀 등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자리 잡아갔다.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대출사업의 진행으로 주변에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게 되었다.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어린이집이었지만 역시 보육환경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옮겨가는 결정을 하였고, 정부 대출을 받아 1995년에 작은 말의 상가 일층으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 자리 잡게 되었다. 넓어진 공간에서는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서 보육을 진행하면서 교육과 낮잠을 분리해서 진행하였고, 바깥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자모회나 가정방문 등 부모협력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② 올망졸망 어린이집 (1994년 4월 ~1998년 2월)

용기종기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아보육의 필요성을 느낀 수원여성회는 매교동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을 문을 열었다. 올망졸망 어린이집은 영아발달에 적합한 영아프로그램 실시 및 건강관리, 영아식단마련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996년 수원시로부터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기도 하였으나 별도 지원은 없었다.⁴³⁾ 영아들은 언어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신뢰가 전적으로 필요했는데, 어

43) 창립 20주년 기념 자료집, 2009, 동네방네영그는 스무살의 꿈

린이집 자체가 부모님들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한 달에 한번 부모회를 진행해서 재정과 보육내용을 공유했고, 부모와 함께하는 나들이나 체육대회도 진행하였다. 올망졸망은 1998년에 폐원했는데, 그 이후에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모임을 해마다 진행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③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부설 신나는 어린이집(1998년 2월~ 1999년 1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대상의 직업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의 탁아문제를 고민하던 중 수원여성회에 의뢰했고, 이전 옹기종기출신 교사 두 명이 파견하여서 직장어린이집형태를 가지고 교육생들의 탁아문제를 해결했다.

④ 생각하는 어린이집

수원여성회에서는 또 다른 보육형태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한참 이야기가 되었던 공동육아였다. 매탄동에 모여 살던 유아부터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회원들이 보육비를 내지 않고, 서로서로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자는 제안 속에서 회원 한명이 본인 집을 보육공간으로 내놓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었다.

⑤ 시립평동어린이집(1998년 5월~2015년 12월)

옹기종기를 모태로 한 시립어린이집은 지역조사에 따라 평동에서 문을 열게 되었고, 수원여성회는 그동안의 보육 사업에 대한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질적인 보육활동을 벌여나가자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되었다.⁴⁴⁾ 원장과 교사의 역할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던 구조에서 수원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므로 처리해야하는 서류와 행정업무와 아이들 보육을 담당해야하는 보육교사의 업무로 나누어지는 구조로의 변화에 각자의 역할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후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체성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지역의 문제와 장애아동의 수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아동과 부모의 반발문제, 연장보육으로 인한 아동의 인권과 부모의 노동권과 보육교사의 권리 등 이전의 재정의 어려움을 뺀 나머지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 문제들도 결국 이전 방식인 교사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 합의하면서 해결해나갔고, 원장이나 교사들 모두 헌신적으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부모님들에게 공간을 개방하여 아동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부모회가 부모들 속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운영과 교육에 대한 공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수원지역의 활동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인식되어갔다.⁴⁵⁾

44) 창립 20주년 기념 자료집, 2009, 동네방네영그는 스무살의 꿈

45) 평동어린이집은 비행기소음이 심해서 아이를 보육하기에는 적당한 공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⑥ 이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고민

어린이집을 보내던 활동가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던 일도 쉬고 다시 아이들을 보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수원여성회는 1995년에 고색동을 중심으로 방과 후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방과 후 아동보호와 교육현황과 문제점, 방과 후 아동지도의 방향, 방과 후 아동의 과제를 제시하는 '방과 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방과 후 방치아동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방과 후 아동보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⁴⁶⁾ 1999년 저소득아동생활지도사업으로 열 곳에 교사들이 파견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후 화서희망지역아동센터와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로 두 곳의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수원에는 오십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수원시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다.

2) 초창기 어린이집 연대 활동

수원여민회 탁아소설립추진위는 수원지역의 기존의 비영리 민간 탁아소가 두 군데인 평민당 부설 소꿉마당놀이방과 한벗교회 부설 아이벳 놀이방과 연대하여 교사모임을 하였다. 당시 모임내용은 보육실태에 대한 이야기와 아동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였다.

3) 지역사회연합회와 지역연대활동

① 수원지역위원회 활동

웅기종기가 지역에서 자리 잡고 수원지역 연대모임이 안정화되면서 전국 조직인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이후 지탁연)에 가입을하기로 결정을 한다. 이후에 생겨난 수원의 진보단체(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남)의 여성모임에서 만든 꿈동산 놀이방과 오산의 청년조직이 만들었던 오산 햇살아기마을은 시작부터 지탁연에 가입하고 나서 지역모임을 함께하게 되었다. 연대모임의 구성원이 열 명도 넘을 때도 있었는데, 교사들과도 지역모임을 진행해서 구성원이 열 명도 넘었다. 이전의 평민당 수원지부에서 운영하던 소꿉마당의 공간이 다른 조직에서 운영하면서 꿈동산놀이방으로 다시 수원여성회가 영아전담어린이집 올망졸망으로 같은 공간이 운영체와 명칭만 바뀌어서 운영되었다(1990년~1998년). 지역 연대모임도 어린이집의 개원과 폐원에 따라서 구성원이 바뀌면서 진행되었다⁴⁷⁾.

차로 아이들을 이동시켜야하는 먼 지역의 활동가들도 평동어린이집을 선호했다.

46) 수원여성회 창립 20주년 기념 자료집, 2009, 동네방네영그는 스무살의 꿈

47)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1992, 함께가는 길, p. 58~61 참조

② 한국보육교사회 경기지부활동

영유아 보육법이 통과되고 나서 주변에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고, 지탁연 초기에 백 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었다면 1995년에는 백배가 늘어서 만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생겼다. 이 당시 지탁연은 다른 어린이집들과 연대해서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이후 민보련)을 만들었고, 민보련은 원장과 보육교사로 모임을 나누어서 진행했다. 지탁연도 원장과 교사의 역할이 통합되어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운영을 하는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육교사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평동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수원지역은 수원지역 평동어린이집, 안산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부천 동그라미어린이집, 오산햇살 아가마을 등의 기존 경기지역 지탁연 교사들과 연대해서 교재교구강좌, 전래놀이강좌, 그림책강좌 등을 개설해서 더 많은 교사들을 영입하는 시도를 하였다. 근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모임도 통일교육소모임, 교재교구소모임 등으로 결과물도 생산하고 끈끈한 연대감도 가지게 되었다.

4) 보육교사들의 자기 정체성의 변화

민간보육시설은 점점 늘어났고, 민보련의 강화되고 확대되었는데, 처음에 나누었던 운영을 맡았던 원장들의 모임은 강화되는 반면 보육시간에 매여 있는 교사들의 모임은 점점 약화되었다. 보육교사들에는 두 부류가 있다. 보육교사로서 결혼하기 전까지 만의 직업으로 택한 경우이다. 물론 최근에는 많지 않은 경우이다. 또 한 부류는 경력을 쌓아서 미래의 원장을 꿈꾼다. 이 두부류 다 열악한 보육조건, 근무조건을 견딘다. 잠시 거쳐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5년에 보육교사회가 보육노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의 고민이었다. 더 이상 보육의 질만을 논의하기에는 보육교사들의 조건이 나빠져 가고 있었다. 보육교사의 권리를 위한 보육노조로의 전환이 필연적이었다.

3. 나가며

평동 어린이집이 수원여성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보내는 부모들도 있다. 그 부모들은 수원여성회가 위탁받지 않음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낸다. 18년간 평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활동가들의 자녀들의 영유아시절을 안정적으로 보살폈다. 옹기종기 시절부터 진행해온 바깥활동, 연령통합교육, 친환경 먹거리 식단 등 많은 부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부모회에 재정공개를 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해왔다. 지역의 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진행해온 것도 사실이다.

보육교사회가 보육 노조로 바뀌었고, 보육운동의 주체인 평동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몇 차례 교체되면서 보육교사들의 정체성과 연대를 제대로 내오지 못하면서 평동어린이집의 교사는 평동어린이집을 '보육운동을 실현하는 장' 이라기보다는 안정된 직장으로 인식하면서 더 이상 보육교사는 보육 활동가로 전환되는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보육환경의 흐름이 바뀐대도 원인이 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후 지탁연) 시절에는 전국에 100개 정도의 탁아소가 존재하였고, 원장과 교사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모두 활동가로서 운영과 교육을 함께 공유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활동했다면, 1995년에 전국민 보련 소속의 어린이집이 지탁연 소속의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탁연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운영되었는데, 지탁연을 제외한 어린이집 대부분은 운영과 교육을 원장과 교사로 나누면서 보육교사의 처우문제가 대두되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구호아래 지탁연은 1995년에 보육교사회로 조직전환을 하였고, 보육교사의 처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2005년에 보육노조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왔다.

보육교사회시절에는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정하고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에 힘을 쏟았다. 이전 지탁연 소속의 교사들은 지역의 다른 민간보육시설 교사들과 재교육을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면서 보육교사회로의 가입을 유도했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다시 조직전환을 통해서 보육노조로 전환했지만 이전의 운동성을 가졌던 교사들은 소진돼서 떠나는 교사들은 늘었고, 새로 가입하는 교사들은 적어서 2005년 노조전환이후로 십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그 수는 줄어들었다. 평동 어린이집도 이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보육활동가가 아닌 직장인 보육교사로서밖에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평동의 보육교사들은 CCTV설치 등의 보육의 문제에 고민이나 반발 없이 시류에 따르고 있다. 이런 교사들을 보육활동가로 견인할 수 있는 담당주체가 수원 여성회에서도 더 이상 나올 수 없음을 평가하면서 재위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수원여성회는 어떤 식으로 보육문제나 정책 관련해서 활동 할 것인가를 24년의 보육활동을 정리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평등평화세상에 날개를 달자, 2004, 수원여성회 창립15주년 기념자료집

동네방네영그는 스무살의 꿈, 2009, 수원여성회 창립 20주년 기념 자료집

한국보육교사회 10활동, 2006, 한국보육교사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 1995,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께가는 길12, 1992,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함께가는 길 4월, 1993,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자료집, 2006, 한국보육교사회

정유선

1. 서론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면서 양성평등의 추구하고 성주류화에 대한 전략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이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성 평등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성주류화를 채택·선언하게 된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가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UN은 성주류화를 여성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이후 각국 정부에도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 이행차원에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었으며, 2000년 이후 여성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성주류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정책도구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정책 전반에 적용하는 형식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제도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일정부분 그 성과가 제도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세대 여성운동가들이 행정부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여성운동계에서 주장했던 성주류화와 관련한 권력의 재분배 과정에서 여성NGO단체는 정부와 평등한 형태의 젠더거버넌스라는 이름의 협치관계를 꿈꿨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위탁수행기관이나 개별적으로 “젠더전문가”라는 이름의 조력자·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성평등 및 성폭력예방전문강사, 각종 위원회의 자문위원 등-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그러다보니 여성운동계 내부에

서는 끊이지 않고 이러한 개입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들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의 활동을 중심으로 컨설턴트의 위치를 무엇으로 볼 것이며 그것을 거버넌스라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 컨설턴트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성주류화정책 실현에 협치 할 의지는 있는지, 컨설턴트라는 방식의 계약관계에서 젠더거버넌스가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GO가 아닌 NGO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여성운동단체의 운동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우리나라의 성주류화전략의 역사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1970년대 이후 여성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를 통해 1980년대 가족법 개정의 성과를 시작으로 1990년대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부설치,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를 법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 주요 여성정책은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여성단체의 성과라 할 만큼 한국의 그 간의 여성단체의 주도적역할은 그 의미가 매우 컸다. 성주류화 정책 역시 1998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축이 되어 매년 전체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론화 시켰으며 특히 지역중심의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의제화 될 수 있었다.

성주류화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삶의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목적은 성평등 실현에 있다. 성주류화는 '성평등' 실현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성주류화의 실행도구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동, 공무원의 성인지력 교육을 들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정에서 남녀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성인

지적 정책분석 도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부가 2004년에 시범분석을 실시한 이후 참여기관과 과제 수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2011년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명칭으로 시범 운용되다가 2011년 9월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대상과 범주가 확대되고 목적과 추진체계도 분명해 졌으며 정부의 제도 시행의지도 보다 분명해졌다.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평가과제수의 증가, 대상사업 범위의 확대, 자체평가 및 교육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통해 그 중요성과 당위성은 인지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부적절한 과제선정, 단계별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업무담당자의 빈번한 이동, 정책개선에 대한 환류의 미비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평등 실현과 성주류화 확산이라는 이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과 절차에만 집중하는 성과위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합동평가를 중심으로 한 실적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나 성인지 예산제도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구이며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의 작성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전환의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결국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과 사업의 실행주체인 공무원들의 인식이 세계적 흐름인 성주류화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성평등한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계획하는 사업내용에 어떻게 성인지 관점을 담아 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2) 컨설턴트의 자격과 그들이 하는 일

성주류화정책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개발과 수행과정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졌고 행정내부체계로 수렴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성평등과 성주류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예산분석을 통해 풀뿌리예산감시운동을 하던 NGO단체들의 참여 입지는 좁아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민관거버넌스에 대한 요구는 하였지만 관과 함께하는 젠더거버넌스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는 빠르게 이것을 제도화 해 나갔다.

여성가족부가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주로 수행해야하는 주체인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에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되거나, 물성적이 되고, '성별관련성'이나 '성별 요구'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성인지 관점의 부족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에 대한 회의와 형식화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젠더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이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컨설턴트라는 이름의 젠더 전문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실행주체로 참여시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공무원에게 대상사업의 성인지적 관점의 방향제시와 분석평가 보고서 작성의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컨설턴트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컨설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정책개선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상담 및 자문'을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법령, 계획, 사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컨설턴트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각 성별여성분석평가센터에서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의 자격요건과 역할에 대한 지침이다.

컨설턴트의 주요 업무 내용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서 컨설팅
2. 컨설팅 대상 : 성인지 정책 관련 과제담당 및 총괄담당 공무원
3. 컨설팅 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정책개선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계별 상담 및 자문
4. 컨설팅 방식 : 대면 또는 서면
 - * 대면 컨설팅 - 기관 방문상담 및 대면회의를 통한 컨설팅
 - * 서면 컨설팅 -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컨설팅

컨설턴트 자격 요건

여성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다음의 요건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석사학위 미소지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에 2개 이상 해당되는 자

- 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및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활동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④ 시민단체 활동가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지역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수료자(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 감사과정 등)

<표1 2013, 컨설턴트 모집요강>⁴⁸⁾

컨설턴트의 자격요건을 보면 여성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계열석사학위 이상소지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학문연구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젠더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별관련성에 대한 부분이고 성인지 관점을 얼마나 민감하게 컨설팅에 적용할 수 있는가?인데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를 했다거나 여성단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성인지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인식의 수준도 각기 달라서 같은 수준의 컨설팅 내용이 나오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젠더연구를 중심으로 한 컨설턴트들은 당연히 행정체계에 대한 구조나 절차를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공무원들의 문제제기와는 또 다른 축인 컨설턴트들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하는 일을 보면 우선 컨설팅을 요하는 기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받으면 검토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② 성별 요구도를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 남녀의 경제적 차이,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8)

블로그 게시판, 2013. 1. 25.

- ③ 성별 형평성을 검토하는데, 기준은 수혜에서의 성별요구가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본다.
- ④ 성별격차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이 법령과 계획, 예산, 사업수행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잘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이과정이 컨설팅의 첫 번째 순서다. 이렇게 1차 검토한 후 컨설턴트는 이제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담당공무원과 일대일 컨설팅을 하게 된다. 컨설팅의 방법은 대면컨설팅을 권장하나 보통은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만나는 일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 통화를 하는 서면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다.

원래 컨설턴트의 역할 중에 대상과제 선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 행정기관에서 올해 어떤 과제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대상과제를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여 성평등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거나 성적 불평등 사안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많은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는 이미 작성된 분석평가서 컨설팅보다 더 중요한 컨설팅의 단계이며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에서는 보통 대상과제 선정에 컨설턴트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과제선정단계에서 컨설턴트의 참여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모든 사업담당자들이 모여서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회의참석이나 대상과제선정을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개 과제선정은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총괄담당 공무원이 각 부서를 돌며 수차례 독촉을 하면 그 부서에서 가장 운이 없는 담당자가 아무과제나 하나를 제출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공무원이 작년에 해당 부서에서 평가서를 작성한 과제를 그대로 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후 대면컨설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면 컨설팅 역시 전체 사업담당자들이 컨설턴트와 약속을 잡아 한 번에 컨설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시기가 차기년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하는 시기라 공무원들이 매우 바쁜 때 인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바쁜 공무원들과 만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컨설팅을 한 평가서를 메일로 다시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담당공무원들은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분석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GIA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은 완료된다.

그러나 컨설턴트의 업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GIA시스템에 입력된 공무원의 평가를 가지고 2차 컨설팅에 들어간다. 평가서에 컨설팅의 내용이 반영되어 분석 평가서가 잘 작성되었으면 (원안동의)를 만일 평가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의견)을 구분하여 전문가의견을 입력한다. 이것으로 공무원과의 컨설팅은 끝난다. 그러나 컨설턴트에게는 컨설팅일지 작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동안 서면이든 대면이든 컨설팅한 모든 내용과 시간을 일지에 기입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로 보내야한다.

이 모든 작업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안에 다 끝나야한다. 그러다보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들은 행정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컨설팅을 하느라 날밤을 새워야하는 일도 생긴다. 이렇게 2차에 걸친 컨설팅을 끝내면 받게 되는 컨설팅 수당은 대면을 하느라 출장을 가든 유선으로 하든, 형식과 횟수에 상관없이 건당 4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컨설턴트의 활동은 짧은 컨설팅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4월부터 소속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해마다 바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수차례의 워크샵에도 참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컨설턴트들은 이 정도의 교육과 워크샵은 컨설턴트의 역량강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꺼이 참석하며 특히나 워크샵에서는 컨설팅을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의 활동은 1년 단위로 연중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현재 젠더전문가로 컨설턴트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나름 성주류화와 성평등에 대한 좋은 젠더거버넌스를 만들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컨설턴트들은 공무원의 태도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공무원인지, 컨설턴트인지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된다. 열심히 컨설팅을 해서 설명을 하고 보내줘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다시 빈칸으로 최종평가서를 제출하거나, 컨설팅 내용이 빨간 글씨 그대로 최종평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담당자가 과연 컨설팅 내용을 읽어보기는 했는지가 의심스럽다.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자괴감이 컨설턴트들에게는 적은 수당이나 일의 고됨보다 더 큰 어려움이다. 게다가 늘 문제제기를 해왔던 NGO활동가들은 컨설턴트라는 자리가 공무원과 같

을 관계 속에서 을의 입장에서 읍소하는 것 때문에 이 활동을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빠지기도 한다.

3) 젠더거버넌스라는 이름의 동상이몽

이런 문제는 컨설팅의 목적 및 방향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기관에서 컨설턴트를 선발해서 젠더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목적은 아직은 성인지관점이 미비한 단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해당사업의 가장 적절한 정책개선안이 전문가를 통해 도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컨설턴트들은 최대한 사업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젠더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평가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수단으로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평등 정책의 정착에 그 목적을 둔다. 정책은 방향성과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무원과 컨설턴트, 센터와 컨설턴트들 사이에서 컨설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우선 되어야 서로간의 갈등이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컨설턴트를 젠더거버넌스의 위치에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컨설턴트에게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를 만들기를 바랐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정부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잘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한정했었다. 이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컨설턴트를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의 실행주체는 공무원임을 명확히 하고 컨설턴트의 역할은 상담 및 자문으로 한계를 지음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컨설팅의 내용은 반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는 성주류화 정책의 실행단계에서 정부는 컨설턴트를 거버넌스의 주체가 아닌 외부전문가의 개입으로 정도로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어떠했는지와는 관계없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두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자신들의 컨설팅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그것이 시민들에게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분석평가서가 서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을 통해 감시와 비판의 기능까지 하고자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성주류화정책의 실현을 위한 NGO의 목소리를 내고자 모니터링과 일반인 대상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늘리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실행주체로서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성평등 정책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컨설팅을 통한 자문도 필요하다. 앞으로 컨설턴트의 역할이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후 작성한 평가서나 예산서가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까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컨설턴트가 경험으로 느끼는 문제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몇 년간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성주류화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직은 실행주체인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필요성이 합의된 상태는 아니지만 평가서 작성과 교육이수라는 의무로라도 공무원들이 남녀 그리고 소수자들의 젠더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함을 인지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컨설턴트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실행주체인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다. 이것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설득과정이 생략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제된 행정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컨설턴트들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무원들이 하나씩 늘고 있다.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성인지 관점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이 확인되면 주체적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상과제 선정의 문제이다. 이 정책은 어떤 사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성이 즉시 크게 나타날 수도, 거의 아무 변화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도 자기 부서에서 대상과제를 선정할 때 부서원들과 함께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선정 단계에 컨설턴트가 참여해서 좋은 과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전체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우리부서의 사업으로 공동의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과제 선정을 하

면서 이미 성인지 관점에 대한 직원들 간의 통합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상과제들이 주로 세부사업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성과목표에 치중하여 평가과제 수를 늘리는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몇 건 했는지에 따라 지자체를 점수로 평가한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과제를 선정해 실행하고 환류하려는 노력보다는 숫자를 맞추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실적위주의 평가는 공무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결과물은 없는 탁상행정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에서도 계량평가보다는 정량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네 번째는 평가서 형식의 문제이다. 지금의 평가서는 성별 요구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여 그 결과가 성평등의 실현이 아니라 성별차이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자전거를 비치하는 사업의 경우 여성이 장을 많이 본다는 가정 하에 여성자전거를 더 많이 비치하고 여성자전거에만 장바구니를 달거나,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시, 안심택배 등 여성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은 여성을 안전에 취약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폭력에 허용적인 문화를 바꾸어서 우리사회를 성평등한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성들이 약하니까 보호하면 된다는 인식은 오히려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 평가서의 형식이 좀 더 쉬우면서도 젠더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의 처우에 대한 문제이다. 컨설턴트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매우 높은 자격요건과 어려운 내용의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해야 한다. 그에 비해 받는 수당이나 대우는 별로 매력적인 일자리가 아니다. 1년에 서너 번의 교육과 워크샵, 한 번의 컨설팅으로는 지금 요구하는 수준의 젠더전문가가 되기는 어렵다. 지금의 형태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컨설턴트는 행정에 대한 이해, 공무원은 성인지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쉽지 않다. 이는 컨설턴트의 역할에 대한 재규정과 정책모니터링의 강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5) 그래도 개입해야할까? - 젠더거버넌스 사례 만들기

이론적으로 거버넌스란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시장, 사회, 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 행위주체들 간의 수평적·협력적 조직(Jessop, Bob

2000, "Governance Failure")으로 정부의 직접개입을 지양하고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다중심 적이고 분권화된 네트워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Rhodes는 거버넌스란 정부가 의미하는 바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새로운 통치과정이라고 말하며 이중 좋은 통치로서의 거버넌스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좋은 통치 방식의 거버넌스란 일방적이고 통제 중심적이 아닌 다양한 부분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버넌스에 젠더 개념을 더한 젠더거버넌스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젠더란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여성의 종속성을 내포하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젠더거버넌스는 사회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여성의 열위를 전제하므로 권력관계를 밝히는 것부터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⁴⁹⁾

거버넌스의 여러 유형중 하나인 젠더-거버넌스라는 개념은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한국은 유럽이나 서구와는 달리 시민사회의 경험이 적을 뿐 아니라 거버넌스의 경험도 거의 없다. 즉, 이론적인 거버넌스의 모델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역사상 민관이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의 협치의 경험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들과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젠더관점을 인식시켜 여성정책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가능케 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젠더관점과 여성참여를 통해 성불평등을 치유해나갈 수 있다. 또한 협력과 견제의 다른 한 축으로서 시민사회 형성의 촉진자, 촉매자, 협력자 역할을 통해 공공성 영역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공유해 갈 수 있다.⁵⁰⁾

중앙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7개의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2009년 이후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이루어졌다. 행정과 전문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모형은 우드워드가 제시한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인 '벨벳트라이앵글'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⁵¹⁾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환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정

49) 안정선, 2013,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50) 이갑숙, 안정선, 2013,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51) 이선민,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p 146

부뿐만 아니라 젠더 전문가와 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모든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과정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정책이 여성 또는 남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어떤 정책이든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이렇듯 거버넌스의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제도에서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컨설턴트로의 참여는 그나마 느슨하고 형식이 거친 상태이긴 하지만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물론 이런 위치를 거버넌스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활동의 내용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컨설턴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의 과정에서 알게 된 자원을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이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를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젠더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지금의 여성운동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입할 것인가, 불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제도화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 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3. 결론

미흡하나마 우리나라의 성주류화정책을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제도화 과정에서의 여성NGO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젠더거버넌스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젠더-거버넌스는 젠더 친화적인 거버넌스로 이해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관련 여성단체영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 ·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공공영역은 곧 정부의 일이라는 등식을 깨고 사회 · 정치적인 문제해결 뿐 아니라 공공선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위해 영역을 확장할 때 젠더의 관점을 도입해야 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성주류화 정책도구가 법적, 제도적 수준에 비해 내실화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전히 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나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을 자신들이 해야 할 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안 해도 되

는 일을 여성가족부가 쓸데없이 만들어 고생을 시킨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그러다보니 본인들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컨설턴트가 다 알아서 분석평가서를 완성해 주기를 바라거나 분석평가서 작성은 하지만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환류가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지금의 문제들은 어쩌면 제도의 시행부터 예견된 문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화와 관행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적인 합의 수준의 이행을 위해 성주류화가 정책화 되었지 실제로 이와 관련한 담론들이 확산되고 그 필요성이 합의된 상태에서 제도화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수준은 높으나 인식의 수준은 낮아서 아직도 '성평등'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도 없으며 거버넌스의 한 축인 정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기는커녕 시민들이 집단의 목소리를 내거나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이 주민들의 직접참여의 자리에는 가능하면 관과 친한 관변인사들로 채우고 싶어 하고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지 실질적인 의견수렴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정책이란 목표달성을 향한 끊임없는 결정과정이다. 성주류화정책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시스템만을 부분적으로 모방한 형태로 제도가 시행 중이다. 그러다보니 현실은 관점의 전환이 아닌 분석평가서라는 서류작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성주류화가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이러한 정책도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성평등 실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남녀에게 평등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조직과 집단의 참여에 의한 젠더-거버넌스가 필요한데 현재는 공무원, 전문가, NGO가 함께 참여는 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소수의 전문가만이 자문역할을 하는 정부주도 형태의 계약관계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의 이 구도를 바꾸는 것이 앞으로 여성NGO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와 그 자원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운동계도 달라진 정치지형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쟁취한 권력을 어떻게 확대 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성단체가 정부주도 방식의 위탁과 컨설턴트라는 계약관계를 어떻게 주도적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말할 때 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들의 구체화 된 내용과 그것을 대변하는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정치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갑숙, 안정선, 2013,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이선민,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김경희 외, 2012,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 현황과 지역 여성단체의 성인지 정책 개입 활동에 대한 고찰

정지영

“밖에서 얘기할 땐 조심해요. 별거 아닌 거 따진다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겐 엄마가 혹시 ‘종북’ 못지않은 기피대상인 ‘페미니스트’가 될까 제법 진지한 충고를 건네는 고3아들이 있다.

“엄마가 여성혐오 사례에 대한 레포트를 써야하는데 생각나는 경험 있어?”

중학교 때 여자성기를 닮아서 조리퐁이 판매중단 됐다는 괴 소문을 전해주기도 하고, 인터넷게임 섯다운 제도의 취약성(부모님 주민번호로 인증하면 됨)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의 탁상행정예 대해 투덜거리곤 했던 아들이라 넌지시 물어보았다.

오! 이번엔 제법 수준 있는 사례를 들려주었다.

몇 달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 했다. 아들은 전교생이 120명 규모인 작은 기숙형 대안학교에 다닌다.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는 저 만치 떨어져있는 학교다.

“미생의 마 부장 알아?”

“알지, 안영이한테 말 세계 하던 캐릭터.”

“응, 개학하고 얼마 안됐을 땐데 그 마 부장 말투를 따라 하는 남자애들이 좀 생겼어. 애들이 재밌다고 따라하다가 음담패설이랑 여자애들 비하하는 말들도 하게 되고 그러다 점점 더 정도가 심해졌어.”

“어떤 말이었는데?”

“처음엔 ‘계집년들이 어디서,’ 이러다가 ‘몸무게 45키로 이상이면 여자도 아니다,’

‘우리 학교 여자애들은 봐도 발기가 안 된다’ 이런 말들까지 갔어. 여자애들한테 직접 대놓고 한 건 아니었지만 간혹 심하게 한 애들도 있었어. 여자애들이 엄청 열 받아 했지.”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책에서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남성이 된다’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남자는 남자들의 집단에 동일화하는 것을 통해 ‘남성이 된다’. 남자를 ‘남성’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남자들이며 남자가 ‘남성’이 되기 위한 수단, 혹은 ‘남성됨’의 증명으로 부여되거나 쫓아오는 보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여자를 ‘여성’으로 만드는 것은 남자이며 ‘여성됨’을 증명하는 것도 남자들이다. 호모소셜(동성사회성)한 집단이란 이처럼 ‘성적 주체’임을 서로 승인한 남자들의 집단을 가리킨다. ‘여성’이란 이 집단으로부터 배제된 자들, 오로지 남자들에게 욕망되고 귀속되고 종속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에게 부여된 명칭이다. 따라서 호모소셜한 집단의 멤버가 여성을 열등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이성애 질서의 핵심에 여성혐오가 있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여성이 아니다’라는 아이덴티티만이 남성다움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을 성적 객체로 삼아 내가 성적주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비로소 동성집단으로부터 남성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썼다.

남학생들은 ‘미생’의 허구 많은 캐릭터 중에서 굳이 마부장의 말투를 따라했던 이유는 뭘까? 그냥 귀에 쫄쫄 들어오고 재미있어서 라고만 하기엔 부족하다. 남성 집단의 멤버로서 자신을 귀속시키고자했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말들이 남자애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농도가 진해질 즈음, 여학생들의 도발이 있었다. 4월 어느 점심시간, 식당에서 남학생들이 한참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식당 한편에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그동안 남학생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한사람씩 돌아가며 그대로 들려주었다. 남자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음, 왜 그러지, 뭐지, 궁금해 하는 애들도 있었고 밥 먹는 데서 그런다고 짜증내기도 하고 대부분은 당황했지.”

5,6교시에 몇몇 반은 수업을 빼고 학급회의를 했고, 7교시에는 전교생이 모여서 전체회의를 했다.

“회의할 때 남자애들이 불만스러운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자애들이 그 부분을 먼저 알아채고 사과했어. 그러면서 여자애들 심정이 그만큼 힘들었다고 말했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퍼포먼스 하는 거 보고 당황하고 불편했지만, 얘기를 듣고 나서 불만은 풀렸고 오히려 미안해졌어.”

“그랬어, 지금은 어때?”

“지금은 여자애들 비하하는 말 비슷한 거 하면 서로 하지 말라고 말해줘. 야! 여자애들이 싫어하잖아. 하지 말라니깐 하지말자, 이렇게.”

학생회장인 3학년 여학생한테 전화를 걸어 그날의 상황을 물어보았다. 아들의 얘기와 비슷했다. 다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왔다는 것이 달랐다. 농담인 듯 아닌 듯 서로 주고받던 말들이 불편하고 불쾌해지던 3월 말. 여학생들은 여기숙사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서로가 들었던 모욕적인 말을 공유했다.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실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여학생들은 그동안 들었던 말을 낱것 그대로 모아봤다. 물어둘 수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 할지, 각자 무엇을 할 건지, 언제할지 등을 논의했다. 남학생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거울을 보듯 스스로를 비춰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미러링 스피치,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기였다. ‘남자애들이 뜻을 알고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개네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 기분을 느끼게 해주자.’라는 의도였다. 일주일을 준비하고 D-데이는 4월 6일로 잡았다.

여학생들은 당일 날, 선생님들께 4교시를 같은 시간에 끝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무언가 있겠다 싶었지만 교사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남자애들이 거의 모였을 때 진짜 못하겠다는 5명을 빼고 33명이 한 줄로 손을 꼭 잡고 섰어요. ‘***,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어.’ ‘***,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 ‘***너희가 이랬어’ 큰 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실어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했어요.”

***는 아래와 같은 말이었다.

“옆구리 찌르면서 ‘살 찼네’ ‘여자는 삼일에 한 번은 패야 돼’ ‘너 김치녀지?’ ‘가슴도 없는데 브라 왜 차?’ ‘계집년이 어디’ 생결도 있는데 몽결은 없어?’ ‘아 나도 생리하고 싶다, 생리하면 무슨 느낌이야?’ ‘애 쉬우니까 사겨서 자보자’ ‘너 조건 만남 하나?’ ‘야한 영화 같이 보러 가자’ ‘너 노출증이야?’ ‘나 개랑 자봤다’ ‘걸레’ ‘너 후다야, 아다야?’ ‘야, 벌려’ ‘야, 저 쌤 생리한다’ ‘여자끼리는 섹스 어떻게 하나?’ 등

퍼포먼스를 끝낸 후, 감정이 폭발쳐 올라 우는 애들이 많았다.

'진짜 이런 말을 듣고 살았구나, 왜 그동안 듣고만 있었지'하는 생각에 모욕감, 분노, 억울함, 슬픔의 감정이 밀려 왔다. 시원하진 않았냐고 물어보았다.

후련함, 시원함 같은 기분은 안 들었고,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넘겼던 게 바보 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말했다. 여성에게 여성 혐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된다. 자기혐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5교시부터 시작한 토론의 내용은 당연하겠지만 여학생 입장에서의 서술이 더 상세했다.

남학생 측은 '남/여 편을 가르는 거다. 일부가 한 말인데 전체를 가해자 취급한다. 밥 먹는 시간에 하나. 공격적 퍼포먼스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등의 주장을 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여학생들은 전 날 미리 준비한 호소문을 읽었다.

“ 여러분!

점심시간에 잠깐이지만 표현했던 우리의 감정이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퍼포먼스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혹시나 몰랐다고 해도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하고 싶었는지는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에서 여학생들 모두가 모여 여태 우리가 들은 말들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쿵광거립니다. 우리가 하고 사는 말인데, 어쩔 이리 모질까요.

모두가 어렵사리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한 인격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거친 언어들이었습니다. 모두를 충격 그 자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쉬이 내뱉을 말도 아니고, 살면서 쉽게 들을 말도 아닌데 학교 안에서 이런 말들이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에 겁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에 수치스러운 말들을 우리 입으로 직접 내뱉기로 결심했습니다.

들어보니 어떻던가요? 가볍던가요? 쉬워 보이던가요?

친하니까, 장난이니까 라는 말들로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일부만의 일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걸 방관 하고 있지만은 않았나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친구로 선배로 후배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었던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에, 장난스레 웃는 표정 뒤에 했던 그 말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는 걸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었다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이라도 제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의 호소를 듣고 진심으로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어진 토론에서 남학생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한 줄 몰랐다. 진지하게 돌아보자. 이렇게 까지 상처 받는 줄 몰랐다.’며 충격과 깨달음이 있었노라 실토했다. 일부가 했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모든 토론이 끝나고 여학생들 끼리 따로 평가회의를 했다.

“남자애들이 미안하다고해서 고마웠다. 이렇게 하길 잘한 것 같다. 우리를 제대로 보여줬다. 남자애들이 느꼈을 억울함도 알아주고 잘하자. 앞으로 그런 말을 던질 때 그건 아니다 라고 서로 꼭 얘기해주자.”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사나 학교는 어떤 관여를 했는지 궁금했다. 여학생들은 교사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고 그저 4교시를 같은 시간에 끝내달라는 부탁만 했다. 교사들은 점심시간의 퍼포먼스와 이후 토론에 함께 했지만 지켜보기만 했고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과정전체를 학생들이 진행한 것이다.

“일반 학교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학생회장에게 해보았다.

“이렇게 할 분위기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남자애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희도 표현 할 수 있었던 게 서로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신뢰가 먼저 있었구요. 그런 게

학교전체에 기반이 돼서 긴 토론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일반학교면 끝나고 바로 학원가는 애들이 많아서 얘기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자애들, 너네는 왜 이따위니, 너네가 나빠’라고 적대시 했다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었을까?

남자들의 여성혐오의 핵심에는 ‘호모소셜 즉 동성사회성’이라는 문화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개인이라면 저항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계집년들의 퍼포먼스”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너희들이 이랬어. 너희의 모습을 봐’라고 하는 순간 다른 방식의 저항의 형태가 탄생했던 것이다.

미러링 스피치라는 방식으로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여학생들의 현명함과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했던 남학생들의 용기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공개적인 토론을 보이지 않게 지지했던 학교의 뒷받침도 중요했다.

성별이원제 젠더 질서 속에서 성장하는 이들 가운데 여성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사회를 공포와 불안으로 떠밀고 있는 메르스 같이 실존하되 마주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혐오의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삶 가까이에 스며들어있다. 무심결에 주고받는 웃자고 한 말, 가장 손쉬운 정보수집과 소통의 공간인 SNS, 드라마, 예능방송 등 시스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너무나 자명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의식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 여성혐오 뿐만 아니라 차이가 차별로 치환되는 사회에서는 소수의 주류가 아니라면 누구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성혐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이원론적 대결구도가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남성이란 여성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래서 ‘남자는 적’이라고 지나치게 단순화 시킨 입장을 멈추고,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며 사회 전반의 정치역학과 같다는 점, 그리고 포괄적인 혁명적 정치학, 이 두 가지 모두를 고찰해야만 폭넓은 시각이 생긴다. 남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사회화를 거부해야 한다. 남성들이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여성이나 ‘성역할’이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자와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남성은 자신들의 실제 착취자들을 용감하게 거명하며 싸워야 할 시기다”

인종과 계급, 성차별에 맞서 실천했던 미국의 흑인 페미니스트 벨룩스의 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유용하다.

학생회장에게 끝으로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었던 힘은 뭐였으며, 그 이후 학교분위기는 어떤지를 물어보았다.

“이번 퍼포먼스의 힘은 폭력적인 말들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그런 언어사용으로부터 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냥 넘기지 않고 공론화 한 것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봐요. 개인이 아니라 여학생 모두 단결해서 집단으로 보여주었기에 훨씬 큰 힘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자로서 가졌던 수치심과 모욕감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키자. 학교문화의 변화시키자.’는 관점으로 토론을 진행했었어요. 이런 걸 요구하고 실천하게 된 계기도 개인으로서는 실현시킬 수 없었던 것을 집단퍼포먼스로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단체행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전달력이 굉장히 컸어요. 퍼포먼스 이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남녀학생 모두에게 훨씬 높아졌어요.”

요즈음은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간의 소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친해지기 위한 행사도 하고 남여기숙사 간의 좋은 점은 서로 배우려 노력해요. 전체가 화합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긴 문자로 학생회장이 답을 해왔다.

지난 여성학 수업시간에 들었던 ‘공공성’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공공성은 주장과 합의, 실천에 있어서 과정이 합리적이며 공개성을 갖는 과정, 개방성, 사회성을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작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아이들이 기특했다.

곧 여름방학이다.
아들이랑 학생회장이랑 만나서 시원한 눈꽃빙수나 먹으며 못다 한 뒷얘기를 들어야겠다.

조은영

1. 해피엔딩은 언제나 거기서 멈춘다

'옛지'있는 여성이 아주 주체적으로, 세련되게, 능동적으로 사랑을 한다. 여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벽이 있지만, 멋지게 헤쳐 나간다. 우여곡절 끝에 남주와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통속적이고 통속적인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랑의 결실은 대부분 결혼이다. 보통 20~30대에 결혼할 텐데, 그 뒤 수 십년 동안의 인생 이야기는 왜 드라마화 되지 않을까. 출산 전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결혼 뒤의 삶을 압축한 것이라 생각했다. 심지어는 너무 행복해서 참지루하겠다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양육, 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출산 뒤 여성의 삶이 민낯을 드러낸다면 드라마는 멜로가 아닌 공포영화로 장르를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여자의 삶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한 인간이 철저히 외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를 처음으로 책임진다는 이 낯선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육아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며 이러한 육아의 영역도 무한경쟁의 시장논리에 노출되어 있다.(홍지아, 2012: 225)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중산층 어머니의 모습, 출산율이 떨어지고 1인당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어쩌면 출산은 여성의 삶을 또 다르게 억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임신은 그 자체가 여성의 몸에 변혁을 일으킨다. 임신의 증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몸은 마치 타인의 몸처럼 낯설다. 밥 냄새를 맡을 수 없어서 10개월 동안 과일과 빵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날마다 커지고 심지어 유즙까지 분비되는 가슴의 변화는 '혹시 내가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공포마저 준다. 그밖에도 의학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과 그 고통은 여성이 10개월 동안, 혼자서 고스란

히 깊어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 또한 출산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출산의 고통과 그 빛깔은 사람마다 다르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출산의 고통을 수없이 상상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것을 10개월 동안 내 뒤통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출산 이후 주체할 수 없는 몸의 고통과 불편함, 반면에 내게 맡겨진 어린 것에 대한 연민과 설렘 등의 복잡한 감정은 이질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초기 모성수행을 하는 여성들을 힘들게 만든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 묵묵히 혼자 견디어야 하는 시간들,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질문하며 하루 종일 가슴을 드러내고 모유수유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은 인간이기 보다는 엄마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모든 여성들이 겪는 과정의 다양한 변화와 갈등, 낯선 경험들이 그간 '모든 여성'이 겪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입덧'은 그냥 '입덧'일 뿐이지 나의 입덧을 말하는 것은 같은 여성으로부터(주로 시어머니) 유별나다는 말을 들어야 했고, 남성(주로 남편)에게는 묵언수행을 부추길 뿐이었다. 남녀가 같이 아이를 만들어서 낳았지만, 24시간 대기 상태로 신생아를 돌보는 사명은 주로 여성에게 주어졌다. 때로는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려 자녀의 심리를 세심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자존감을 살려주지 못하는 '문제 아이의 문제 어머니'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자신의 부족으로 아이를 눈멀게 하거나 아이의 목숨을 잃게 하는 '죄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홍지아, 2012: 224)

2. 지역사회와 여성

지역사회는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사회에서 지역은 인위·행정적으로 편성되었다. 지역사회는 정치단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는 곧 지방자치체의 문제가 되었다. 지역사회라는 곳에 일정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노인, 여성(출산 후 모성수행중인 여성), 어린이, 청소년 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커뮤니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치와 연계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노인, '새마을 부녀회'로 칭할 수 있는 세대의 나이든 여성들이다.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여성운동을 이끌어나가는 중앙 중심적인 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치 기획을 할 것인가는 지역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자 오래된 고민이다. '페미니즘'과 '아이를 키우는 기혼 여성'의 그 아득한 간극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키우고 세력화하는 여성들의

활동에서 우리는 어떤 긍정성을 찾을 것인가? 이성애중심의 가족주의, 극단적인 육아 몰입 등의 고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여성운동과 '맘 카페'는 어떤 접합을 시도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구리남양주 맘> 카페 글과 온-오프 활동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정리해보고자 한다. 구리남양주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고등학교 학군이 동일하고, 일부 행정기관을 공유하고 있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다. 경기도 남양주는 약 60만, 구리는 약 19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단위의 신규 아파트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도시이다. <구리남양주 맘> 카페 회원은 2015년 5월 21일 현재 33,477명으로 구리남양주의 대표적인 맘 카페라고 할 수 있다. 이 카페에는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형식적이거나 남녀간 '기회의 균등'을 교육받은 세대이다.

3. 남편도 알아주지 않는 임신, 예민한 나에게 반응해주는 게시판

지역'맘 카페'의 출발은 포털 사이트의 임신출산 카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230만이 넘는 회원을 확보한 어느 임신출산 카페(네이버 '맘스홀릭 베이비', 2003년 결성)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게시판을 만들고, 정보를 나누다 보니 독립해서 자기 지역 '맘 카페'를 만들게 되었다

왜 임신출산 카페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임신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며, 그것의 형태는 사람마다 모두 같지 않다. 설렘과 두려움, 외로움, 불편함, 감정의 기복 등이 매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하루하루 몸이 달라진다. 여성들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 변화를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으며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는 남편은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족인 여성들도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며 매일매일 변화로 낮설어하는 임신한 여성의 몸을 '피곤'해 한다.

말머리선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인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26238050	13주 1일차 초음파 성별 딸인가요? [9]	akskak	05:43	298
	[임교이 식재된 답글]제 사상차리라 보혈광고하라 육본데이~	영동여사	06:22	34
26238029	잘때 숨이차여 [9]	우리아가도담	05:26	154
26238028	[쌍둥이임신] 시험관 상둥이, 갑상선 전절제.. 태아보혈 있을까요? [1]	메이퀸러브	05:26	97
26238019	[임신8개월까지] 출파까지 어케 기다려용? [5]	해피걸	05:18	203
26238010	재왕절개한 경우에 복근을 만들수 있나요? [4]	광고도르	05:12	298
26238009	29주차 증상을 [24]	아들태명은꽃님	05:11	229
26238006	[임신10개월] 진통인지 한번만 봐주세요 [14]	hyunjung2642	05:07	276
	진통인지 한번만 봐주세요 [1]	튼튼베베맘	05:13	27
26238005	70일 아기 밤잠 한시간마다 깨요.. [2]	wngml4892	05:05	157
26237989	[임신8개월까지] 혈액으로하는 태아 성별검사	윤소마미	04:50	313
26237986	갑자기 앞이 이상하게보여요ㅠㅠ 이중상아시는분 [28]	너땀에살꺼야	04:46	715
26237983	진통중인데 살려주세요 ㅠ..ㅠ [8]	공밍	04:45	599
26237976	아들둥이가...그렇게 안좋은건가여 (핑예) [34]	맘스홀릭코코	04:38	943
26237960	경험 맘들 입덧 질문이요~^^ [8]	꿀돼지	04:20	126

<그림1. '맘스홀릭 베이비' 임신중 질문 게시판, 네이버 카페>

(변 사진 있어요) 완모아기 장염일까요? | 건강 질문방

포르테로(goeu****) 주부구단 1:1

77일 완모 아가예요
하루에 수유 6번 하고, 대변은 1번씩 교박교박 합니다
원래는 황금색에 흰 알갱이가 많은 변을 봤는데요



<그림2. '맘스홀릭 베이비' 건강 질문방, 네이버카페>

하지만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만난 임신한 여성들은 달랐다. '(임신)주수 놀이'라는 것을 공유하며 임신한 여성들은 몰입하게 된다. 내가 올린 '시댁 잤은' 질문에 순식간에 댓글이 몇 개씩 달리며,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위안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이 다가올수록 여성들은 누구나 기대감과 출산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다. 누구도 위안해줄 수 없는 대책 없는 두려움을, 여성들은 이곳에서 함께 나누려 한다. '나의 출산기' 라는 게시판은 매우 다양한 출산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출산 전에 이슬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슬이 없는 사람도 있으며, 자궁문이 몇 센티미터 열렸을 때 무통 주사를 맞는 게 좋은지,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자도 엄습해오는 출산의 공포 때문에 출산 게시판의 글을 100편을 넘게 읽었는데, 인상적인 글 덕분에 출산의 고통을 줄일 수 있었다. '출산의 고통이 정말 궁금했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10만명의 군사가 뱃속에서 칼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맘스홀릭, 나의 출산기 게시판)라는 글을 읽고 출산의 고통이 두렵기 보다는 정말 궁금해졌다.

'출산이 애국'이라며 온갖 출산 정책을 선전·홍보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카페를 유지시키는 커다란 동력이 된다. 이 믿음은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4. '마을살이'를 시작하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진입의 도구

마을 안에서 '타자'로 살아가던 출산 이전 기혼 여성들에게 마을은 매우 낯설다. 각자의 삶을 자기 패턴대로 살아가면서 직장 중심, 혹은 취미 중심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던 여성들에게 지역사회는 단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정착시킨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한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는 '출산한 여성'의 범주에 새롭게 진입하여 비로소 '나'를 드러내는 일을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시기 여성들에게 지역 맘 카페는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된다. 마을 단위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적 범위이다. 출산 초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은 "우리 아기 변을 봐주세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라며 육아기에 일어나는 의문점들을 질문한다. 이에 회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댓글을 달아주며 쌍방 소통이 되고 있다. "80년 원송이띠!! 지역 동네친구 찾아 봅니당^^* 현재 남양주 퇴계원 거주 중이구요~ 임신 7주차 예비 맘이에요~"(신짱(kk94****, 구리남양주맘 카페)라며 임신 주수가 비슷한 친구를 찾거나, "평내동 15개월 아기 친구 구해요~~"(79남양주 둥이맘, 구리

남양주맘 카페)라며 공개적으로 친구를 구하기도 한다. 그간 마을의 타자로 살아 온 임신, 초기 모성수행 여성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맘 카페는 여성들이 지역사회 내 자신의 커뮤니티를 찾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5. 맘 카페의 진화-소비자로서 세력을 형성하는 맘들

초기에 임신 및 출산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시작했던 맘 카페가 진화하면서 맘 카페는 다양한 변모를 거듭한다. 초기 육아용품 사용 후기 나눔 정도였던 카페가, 이후에는 육아용품 등 생활용품 공동구매, 카페 서포터즈 모집, 오프에서 진행하는 정기적 마켓 데이로 진화해 왔다. 다수 회원을 확보한 임신 출산 카페는 육아용품업체의 가장 좋은 마케팅 대상이 되었으며 지역맘 카페로 내려올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통돌이 세탁기 청소업체 추천 합니다 강추요”(호호마마요, 구리남양주맘 카페)라는 글에 깨끗한 세탁기 사진을 한 장 올리면 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대의 경우라면 그 업체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고 만다. 따라서 지역 자영업자들은 카페 ‘서포터즈’라는 미명하게 맘 카페에 일정 정도의 경품이나 후원금을 내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맘 카페’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로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회원의 글을 가장한 상품의 홍보는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홀로 육아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터넷 쇼핑’을 가장한다.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아이를 키우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반면 지속적으로 카페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맘 카페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구리남양주 맘> 카페는 매월 1회 ‘마켓 데이’를 운영한다. 각종 중고 물품 뿐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비를 내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4년 째 운영 중인 ‘마켓 데이’는 약 2~300명이 참여하는 큰 정기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업체 쿠폰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각종 할인과 무료 경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구리남양주 맘은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체로서, 이용약관에 “구리남양주맘은 지역의 상업적 정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리남양주 맘사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로 협의된 업체 외 업자의 상업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제재 합니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카페 초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카페에서 경제적 홍보활동이 많아지고 마켓 데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2014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헤쳐모여가 자유로운 여성들의 공동체

'맘 카페'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기혼/비혼 여성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애 중심의 가족주의, 육아 몰입 현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20~40대 초반의, 고등교육과 형식적이거나 남녀평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다른 틈새가 드문드문 보이기도 한다. 인터넷 공간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커밍아웃 하기 어려운 "미혼모라는 입장에서 곧 육아를..^^"(상큼한 그녀, 구리남양주맘 카페) 시작하는 여성들의 자기 고백과 격려, 지지를 원하는 글이 보이기도 하고, 기혼 여성들도 댓글로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공동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속해있는'여성들의 1차적 공감대는'육아'문제이다. 카페 회원이면서 오프라인 활동까지 하고 있는 스태프, 열성 회원들은 대부분'전업주부'라 불리는 여성으로서, 성별분업을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남편이 돈을 버는 대신, 나는 육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카페에서는 임신 초기 태교부터 문화센터 프로그램, 학습지, 학원 정보 등이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다. 카페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회원은 자기 콘텐츠가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엄마 표 독서', '엄마 표 영어' 등을 놀라울 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카페 회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으며, 내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지만 해야만 하는 엄마의 롤 모델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중심의 다양한 부모교육, 정보가 카페에서는 공유되는데,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엄마와의 애착형성','엄마의 무관심','지나친 방임 혹은 지나친 간섭'(심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라고 칭해지는)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고, 스마트하게 육아를 하며,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딜레마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문제, 2014년 세월호 사건처럼 큰 사회적 문제, 양육비,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의 문제에는 자발적인 행동을 조직하기도 한다. 구리남양주맘 카페에는 <세월호를 위한 기도>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세월호 문제를 공유하고, 여론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미 필요 없어진 아기 옷을 5,000원을 받고 기어이 파는 어린 엄마들의 모습, 실용주의적으로 친구를 만들고, 경제적 이득이 되는 곳에는 반드시 찾아가는 모습들이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지역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이루었다. 묶여 있지 않지만 묶여 있고, 행동하지 않지만 또 행동하고 있다. 나와 대화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놀이터에서 만난 여성이, 인터넷 카페라는 공간에서는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고, 물건을 나누어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오프에서 정치를 이야기하면 쳐다도 안보는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무상급식 서명을 하자고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길을 찾아 떠난다. 여성운동은 무엇인가. 풀뿌리 여성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며,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여성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행동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만들어가는 지역 '맘 카페'. 모성 경험은 임신, 출산 등으로 촉발되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으로 간주되었지만, 시대의 변화로 인해 매우 집단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과거에는 소규모로 경청하고, 공감하던 여성들 간의 모성경험이 집단화 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여성으로서의 자매애와 같은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육아 공동체의 변화는 새로운 틈새를 만든다. 삶의 씨줄과 날줄처럼, 아주 섬세하고 새로운 기획들이 여성들의 삶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홍지아, 2012,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 '신여성' 과 EBS '부모'가 제시하는 모성의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014, p205~228

노영주, 2000,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3호, p71~83

최리주

1. 들어가며

한국의 여성운동사는 여성운동의 조직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해야 하는 지부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지니고 시작되었다. 교회와 선교사의 지원으로 신교육을 배우고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여성들은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이름보다는 독립운동가의 어머니란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였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에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자진 복종하고 음지에서 지원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해방을 맞아서 전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위해 지배자의 입맛에 맞게 여성조직의 리더들은 정부에 동원되기도 하고 스스로의 위치와 세력 확장을 위해 이용하기도 하며 결탁하게 된다. 지배계급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활동했다고 보기도 하고 이승만 정부에 이용당하다가 버려지기도 했다는 등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시대 여성운동가의 생각은 이중의 해방⁵²⁾에서 벗어났다고 환호하였다.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의 해방'과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은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도 했고,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계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해방공간의 여성담론은 활동을 하되 정절을 유지한 채 남성중심의 사회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식이었다고 이임하는 얘기한다.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여성의 경험과 차이는 무시된 채 성녀/창녀 이분법의 재연이었다는 것이다. 해방이 된 후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여성의 이미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이었다. 여성노동자의 이미지는 기생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가련한 '누이'의 모습이었다. 생존을 위해 노동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며 일제 시대를 꿰뚫히 살아갔던 여성들이 존재했음에도 적극적인 여성노동자들의 내력을 찾을 수 없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담론은 제한된 영역에서 한정된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그 시

52) , 해방과 여성, 적성, 창간호 의 글을 이임하의 글에서 재인용

대 대한노총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노동자들은 위기의 시대에 동원되어 생산에 힘써야했지만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로 노동자보다는 노동자의 아내역할을 기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동이란 문제의식은 소설이나 잡지 등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임하는 말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사에서 여성의 노동문제만큼 여성의 존재를 부각하고 권리를 주장할 명확한 명분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사회구성원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와 목소리를 찾을 수 없어서 간과되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1930년대 여성노동자로 발굴되어 알려진 강주룡과 식민지 시대의 여성작가 강경애를 띄워보기로 한다. 또 현재 여성운동의 획을 긋고 있는 인물중에 개인의 노동사를 책으로 낸 두 명의 주인공을 살펴보기로 한다.

『열세살 여공의 삶』을 펴낸 신순애와 『소금꽃나무』의 저자 김진숙이 쓴 두 권의 책을 통해 과거 여성노동자의 삶과 시대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성해방은 요원한 시대에 남성과 평등을 누리며 인간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성의 노동만큼 가시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의 역사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국가를 전복할 만큼 이적 행위로 취급되어 신념을 지키는 일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자가 가진 지위는 더 열악했으니 여성노동자들의 역사를 배우고 발굴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럼 박준성의 『노동자 역사이야기』에서 소개한 최초의 고공 농성 여성노동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2. 최초의 고공 농성 여성노동자, 강주룡

강주룡⁵³⁾은 평양에 있던 조그만 고무 신발공장 노동자로 을밀대 위에서 '을밀대 고공 농성'으로 소개되며 알려졌다. 식민지 시대 여성이면서 노동자였던 이의 이름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역사에 기록된 이름들은 타협과 변절의 길을 걸어갔던 '친일파'들에게 묻히기 쉽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이 된 그들은 글을 쓸 시간과 돈도 사례를 만들 자료도 풍부했다. 주위에 지식인이나 작가를 고용하면 화려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노동운동 역사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고공농성 1인 시위'라고 할 수 있는 강주룡에 대해 알아본다. 강주룡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사회의 속박을 벗어나 당당

53) 을밀대에 올라갔을 때 신문에 실린 나이는 30세로 20살 때 5살이나 어린 최전빈과 결혼하여 백광운의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남편이 숨진다. 시집에서는 '남편 죽인 년'이라고 의심하여 중국 경찰에 고발당한다. 경찰서에서 일주일 동안 단식하면서 무고함을 주장했다. 평양 친정으로 옮긴 후 부모를 모시고 어린 동생을 보살피며 집안을 꾸려갔다.

한 여성노동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소수에 불과했다. 일간지에서는 '아직 조선노동운동선상에서 보지 못하던 새 전술'이라고 신문들은 앞 다투어 '을밀대 체공녀 파업 선동하다' 등으로 소개되었다.

"식민지 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조선인 남성 노동자들의 2분의 1, 일본인 남성노동자들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했다. 그뿐 아니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인신구속, 폭행, 성희롱에 시달렸다.⁵⁴⁾"

이른 새벽 통근차 고동 소리에
고무 공장 큰아기 벤또밥 싹다
하루 종일 쭈그리고 신발 붙일 제
얼굴 예쁜 색시라야 예쁘게 붙인다나
감독 앞에 해죽해죽 아양이 밀친
고무 공장 큰아기 세루치마는
감독 나리 사다 준 선물이라나.

위의 대목은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여성의 노동과 성 착취를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뿌리 깊은 여성차별을 실감하게 한다. 그 시절 고무공장은 고된 작업으로 소문나 30세 전후의 기혼 여성들만 배겨날 수 있는 일자리였다, '고무 공장 큰 아기'⁵⁵⁾라는 신민요는 불량품이 생겼을 때 벌금도 물어야 했고, 불량품을 판정하는 남자 감독관의 횡포에 시달리는 처지를 잘 드러내 주는 노래이다.

세계 공항이라는 파도는 식민지 조선에 까지 밀려와 보통 때도 흔히 쓰던 수법을 모두 사용하며 노동자들을 자르고,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을 늘이고, 노동 강도를 높였다. <평양고무 직공조합>은 임금을 17퍼센트 깎겠다고 하여 '임금 인하 반대, 해고 반대' 등 20여개 조항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가운데 3분의 2가 여성 노동자였다. 여성노동자들은 파업본부를 따로 만들어 '산전·산후 3주간 휴양과 생활 보장, 수유 시간 자유'같은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파업에 참가했다.

다른 고무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문제였기 때문에 회사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굶어 죽기로 싸우겠다는 아사 동맹을 결의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에 강주룡은 "물러서느니 여기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굶어 죽겠다"⁵⁶⁾고 자살을 결심하고 을밀대 올밀대에서 생각을 바꾸어 요구사항을 주장하게

54) _____ 노동자 역사이야기 p. 260

55) _____ p. 261

56) 동광, 1931, 7월호, 잡지사 기자와의 인터뷰

된다. 1개월에 걸친 평원고무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회사측이 임금인하를 철회하고 파업자 전원채용은 이뤄내지 못한 채 쟁의가 매듭지어진다. 강주룡은 '평양지역 혁명적 노동조합'에 참여했던 것이 드러나 체포되어 1년 동안 옥중 투쟁을 벌이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일찍부터 남다른 사회의식이 있었기에 독립군 부대에도 들어갔고 사회 활동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남편과 시댁이 없었고 육아의 부담도 없었다. 여성의 독립은 모성과 가족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사회참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3. 『인간문제』의 작가 강경애⁵⁷⁾

강경애는 1929년 근우회 장연지회 회원이 되어 과거에 동거했던 양주동과 염상섭의 중간파적 입장을 비판하는 평론을 발표한다. 1931년 「파금」을 조선일보에 게재함으로써 문단에 데뷔하고 장하일과 결혼한다. 지하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으로 남편은 이념적인 동지였으나 시대적 상황 때문인지 평등한 관계⁵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검열과 열악한 출판 사정 탓에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못하다가 작가 사후 1949년 『인간문제』를 북한 노동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펴냈다.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 작품은 개작 출판되었다고 한다.

『인간문제』는 농민들의 힘겨운 삶과 도시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한 연재소설로 1934년 <동아일보>에 실렸다. 주요 줄거리⁵⁹⁾는 아래와 같다.

57) 농민의 딸로 재가한 엄마와 황해도에서 성장한다. 평양 승의학교에서 엄격한 종교생활에 항의해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당하자 양주동과 함께 동거하며 동덕여학교에 편입하여 공부한다. 1931년 장하일과 결혼하지만 조흔한 아내를 피해 인천과 간도 등지로 옮겨가면서 생활한다. 1936년 용정에서 '북향'동인을 결성했으나 건강이 좋지 못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다. 1939년 <조선일보> 간도지국장을 역임하게 되지만 신병이 악화되어 1944년 생을 마감한다.

58) 『인간문제』를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원고료 200원을 받은 내용을 주제로 1935년 <신가정>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했는데 작가 부부의 일면을 볼 수 있다.

59) '한국현대장편소설 사전'의 줄거리 요약

용연 마을에 사는 선비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 고운 처녀다. 선비의 아버지 김민수는 지주인 정덕호 집 하인인데 소작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덕호에게 맞아 죽는다. 모친마저 여인 선비는 덕호의 집 몸종으로 들어갔다 결국 덕호에게 순결을 빼앗긴다. 선비를 좋아하는 첫째는 지주인 덕호에게 대들었다가 주재소에서 호되게 당한 후 인천으로 떠난다. 한편 덕호의 딸 옥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학생 신철이를 집에 데려오는데, 신철이 선비에게 관심을 보이자 선비를 학대한다. 덕호네 식구들의 구박을 견디다 못한 선비는 결국 덕호의 집을 도망쳐 나오고, 덕호의 첩이었다가 쫓겨나 서울로 간 간난이를 찾아간다.

한편 선비를 마음속에 그리던 신철은 돈 때문에 자신을 옥점과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온다. 그 후 그는 인천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맡다가 첫째를 만난다. 첫째는 막노동 일을 하다 만난 신철을 통해 계급의식에 눈을 뜬다. 한편 간난이와 함께 인천의 방직공장에 취직한 선비는 공장 일을 하며 자신의 노동력이 짓밟히고 인격이 유린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던 중 선비는 여공들의 각성에 전력하던 간난이가 조직의 지령에 따라 탈출하는 것을 돕고, 뒷일을 대신 떠맡게 된다.

얼마 후 신철과 첫째 등의 노력으로 파업이 일어나지만 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두 사람은 노동 쟁의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체포된다. 감옥에서 대학 친구를 만난 신철은 그의 회유에 넘어가 전향서를 쓰게 되고 옥점과 결혼한다. 한편 곳곳하게 버티다 출옥한 첫째는 신철이 전향하고, 선비는 폐결핵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첫째는 죽은 선비를 품에 안고 인간 문제를 풀 사람은 신철과 같은 지식인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전반부는 주로 지주-소작인이라는 봉건적 질곡의 관계에서 선비라는 소작농의 딸이 경제적, 성적으로 고난을 겪는 이야기이다. 후반부는 농촌을 떠난 선비가 도시의 공장지대로 가서 노동자가 되어 투쟁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년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여성작가가 전근대와 근대의 사회적 모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별로 없어 보인다. 계급사회의 가난과 성차별로 이중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진수라는 평가⁶⁰⁾를 받고 있다.

제목이 말하는 '인간 문제'는 계급의 문제, 노동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성착취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제식민지하의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강경애의 소설을 통해서 3중의 억압⁶¹⁾을 볼 수 있었다.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문단에서조차 조명을 받지 못한 시대적 아픔이 있지만 이런 인물들의 발굴은 자원이 되기에 충분하다.

60) 홍보 문구를 참조한다.

61) 식민지국가의 노동자이면서 여성인 상황을 일컫는다.

해방 후 민주주의를 표방한 한국의 60년대 이후의 여성노동자의 활동은 어떠했을까?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했을까? 일한 만큼 대접은 받은 것일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민주화시대의 노동투쟁으로 확인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여성노동자들도 자신의 힘으로 투쟁의 역사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사회는 진화하고 의식은 나아졌는지 두 명의 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4. 도시빈민으로 여공이 된 신순애와 김진숙

신순애의 글은 열세 살에 청계천 평화시장의 시다로 취직하여 미싱사로 60~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한 여성노동자의 생애경험에 대한 자전적 서술⁶²⁾을 담고 있다. '불쌍한 여공'에서 '청계노조'를 알게 되면서 당당한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시골에서는 배가 고파 굶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일자리와 돈이 필요한 가난한 소작인들은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일가족이 상경하여 도시빈민층을 형성⁶³⁾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열세 살에 시다로 취직하면서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다락방'으로 소개하고 서열화한 노동과정이 일상의 여성 노동자들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알 수 있었다. 사장은 재단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재단보조는 미싱사를 쥐어짜고 미싱사는 나이 어린 시다를 부리게 되는 구조가 여실이 보였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식당도 화장실도 없는 저급한 자본의 속성을 보여주며 성폭력·구타·임금 떼어먹기 등 온갖 여성착취를 경험하게 된다.

김진숙은 남자들의 이름만 호명되는 노동계에서 여러 차례 희망버스⁶⁴⁾를 띄운 여성 고공 농성자로서 알려진 인물이다. 그녀는 한복 끝에 금박·은박을 찍던 가내공장과 와이셔츠 공장을 다니다가 해운대 백사장의 아이스크림 장사, 신문배달, 우유배달을 전전하고 샴푸와 정수기 방문판매도 하였다. 봉급이 적어 가방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김해 122번 시내버스 안내양을 하게 된다.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매달려 안전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버스요금을 훔쳐 갈까봐 사측의 남자들 앞에서 알몸수색도 당하는 등 인간적 모욕을 경험한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여성들의 직종에서 일했던 신순애에 비해 김진숙은 혼자

62) NGO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81년 1월 청계노조 해산 전후 시기까지의 기록이다.

63) 대량의 미국산 밀을 수입하는 저곡가 정책으로 소작인들은 농촌을 떠나게 되고 도시빈민층으로 흡수되면서 거대한 산업예비군으로 편성되니 저임금의 수출주도형 산업이 가능했다.

64) 한진중공업의 노사문제 해결과 김진숙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5차례 희망버스, 노조 협상을 타결로 이끌고 309일 만에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살면서 남성들의 성적폭력과 여성차별에 예민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노동운동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이름은 없이 누구의 엄마로 불리고 딸의 미래에는 기대감이 없는 남성들의 실태에 실망하는 눈치였다. 10대 들의 가슴을 주무르는 버스기사의 성추행을 보면서 그 노골적 횡포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여성의식이 강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래서 봉급도 높고 남자들과 대등하게 일할 수 있는 용접일을 배우며 거친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여성노동자들을 나약한 여자에서 주체적인 노동자로 만드는 과정은 노동조합을 만나고 부터였다. '순진한 여공'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의식이 변화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는 흐름이 있었다.

5. 여성노동자, 노조활동과 만나다

신순애는 청계노조에서 찍은 유인물에 '중등 수업 무료'라는 문구를 보고 초등학교 3학년의 한을 풀고자 했다. 청계피복 노동교실은 중등 과정 입학원서와 청계노조 가입 원서를 함께 받았다. 노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를 공짜로 시켜준다는 말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입학식 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전태일 동지에 대한 묵념을 할 때 전태일이라는 인물을 처음으로 접한다. 평화시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는 것이다. 노동교실에서는 작업과 일상에서 필요한 알파벳·한자를 배우고 재미를 붙이면서 인간적인 대접에 자부심을 느끼며 공부하게 된다.

김진숙은 현대중공업을 다니며 방송고 진학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떼러 갔다가 관리사원들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좌절했다가 근로 야학을 찾았다고 한다. 본인에게 절실한 영어단어나 수학공식보다는 근로기준법과 노조에 대한 설명을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망설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야학강사가 건네준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전태일 평전』을 받아들면서 '노동자'란 이름에 반감을 느꼈다고도 표현했다.

'너는 벌레가 아니고 인간이라며 인간이 당연히 품어야 하는 희망에 대해 얘기한' 전태일의 글과 만나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이 있다는 진실을, 용기를 얻었다고 기쁨을 말한다. 또 사측과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간첩도 빨갱이도 용공분자도 아닌 순진한 여공이었다는 공통점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들을 개인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자본의 맛을 안 악랄한 사장과 탐욕스런 관리자들이었다.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은 사회적 무관심(정치인과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과 법조인) 그리고 국가가 떠드는 데로 사유 없이 믿어버린 국민들이었다.

6. 노조활동의 성과와 희망

신순애는 평화시장에는 한 달 내내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회상한다. 바쁠 때 그만두는 것도 노동자가 선택한 저항의 방법이었는데 사장은 껄뽀하다고 월급을 질질 끌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없어서 대응할 수 없던 여공들이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다반사였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으나 이행하는 공장이 적었다. 하소연하는 여공의 접수를 받고 조합원들은 시간이 날 때 마다 공장으로 찾아가 퇴직금을 달라고 시위를 하였다. 그렇게 한 달간 여럿이서 시위에 참가하자 결국 사장은 퇴직금을 주기로 하고 청계노조가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사과를 하게 된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투쟁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노동교실의 만남은 지속적인 모임이 되었고 노조활동가들은 뜻하지 않은 성공들을 맛보면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김진숙의 글에서는 한진중공업의 최초의 저항은 '도시락 거부 투쟁'이었다. 크고 유명한 회사에 식당도 없고 쥐들이 우글거리는 현장에서 새까만 콩보리밥을 냄새나는 공업용수에 말아서 후루룩 삼키는 일과가 점심시간 마다 반복되었다. '밤새 가리방 굶어서 손바닥만 한 빠라가 만들어지고 뿌러졌다'고 '우리는 개밥을 먹을 수 없다!'가 제목이었다고 회상한다. 첫째 날 아무것도 모르고 도시락을 먹은 사람이 조합원에게 주먹질을 당하자 둘째 날부터는 자발적으로 도시락 먹기를 거부하였고 사흘 만에 사장 명의의 대자보가 붙었다는 것이다. 상여금 100% 지급과 연말까지 식당을 지어주겠다는 내용이였다. 어용노조에게 익숙해진 직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로 그때의 기쁨이 투쟁의 힘이 되었다고 한다.

노조활동으로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고통들과 사측이 약속한 합의도 이행하지 않고 배신당했던 기억들, 그래서 노동자의 한계를 뼈아프게 경험한 일들은 알아보지 않기로 한다. 아직도 현실은 강자의 편이고 우리와 같이 힘없고 뺨 없는 약자들은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기 때문이다. 남해 바다를 주름잡던 거북선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통찰과 현장 관리자들의 말투와 시선이 달라지게 만들고 사람으로 대접 받게 만든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최초의 여성고공노동자로 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도 무시당해 온 수많은 신순애와 남자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누며 선박을 만드는 김진숙과 같은 여성노동자들의 역사를, 자기투쟁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사회는 이런 투사들에 의해 조금씩 대접받는 사회가 되었고 국민들의 의식도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약자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게 되었다.

7. 길은 걷는 만큼 줄어든다⁶⁵⁾

신순애와 김진숙의 글을 읽으며 나는 1986년 회사생활이 생각났다. 어찌하다가 노무과에 보조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노조의 힘이 강하지도 못했던 대기업의 생산공장 이었다. 1986년부터 생산직사원의 학력검사를 위해 이력서와 구비서류를 살피고 최종출신학교에 대학으로 진학했는지 확인 작업에 매달린 적이 있었다. 지방의 중·고등학교로 아무개의 학력을 확인해달라는 공문 발송에 이어 허위 사실을 기록한 사원은 퇴사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동의식이 없던 사회초년생이었기에 사측의 편에서 고용주의 시선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위장취업이라 욕을 했다. 또 퇴근 후 노조원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미행한 적도 있었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숨어서 따라다니다가 공중전화로 보고를 했던 일들이 결국 그들의 책에 의하면 노조활동 감시와 탄압이었던 셈이다.

나는 노조원들과 대의원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에 거부감이 있었다. 87년 대투쟁 때 파업을 한다며 농성장에 모여 히히덕거리고 여직원들을 위아래로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불쾌한 기억이 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노동행위였음에도 일탈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전체 노조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였다. 계급차별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대등한 노사관계를 불편해하고 노조를 불온시 하는 국민 대다수가 나와 같은 의식을 가진 것은 아닌가 싶다.

노동자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보니 그때의 회사생활은 관리직사원과 생산직사원의 차별이 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장의 경력이 많은 직원이라도 명찰은 날라 가는 바느질로 달랑 소속과 이름만 박고 사무실 직원들은 꼼꼼한 바느질로 명찰부터가 목직해보였다. 그러다 보니 식당의 조리사들도 명찰의 색깔만 보고 견더기 없는 국물만 담는다는 차별을 가한다고 구분 짓지 말라고 하소연했다.

또 사무직들은 외출, 출장이 편했고 현장직 들은 출근카드기로 찍히는 근무시간 대로 조퇴와 지각 처리를 확실히 하여 급여를 계산하였다. 또 컴퓨터와 복사기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등사·복사 직원은 여직원들에게 성추행도 버젓이 행했고 항의해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남자직원들이 없었다. 가족임금을 받는 남자들의 노동을 너무 인정해준 결과로 여직원들의 근무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겼다.

사회는 후퇴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내던져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조금씩 앞으로 전진 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투지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

65) , 소금꽃나무, p141 인용

성노동자들은 최전선에서 싸우고 후배들을 지켜주는 방어선이 되었다. 때로는 현장을 모르는 고용주와 싸우고 때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남자들과 싸워야 했던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참고문헌

이임하, 2005, 해방 뒤 국가건설과 여성노동, 역사문화 연구 no. 15

박준성, 2009, 노동자 역사이야기 이후

강경애, 2006, 인간문제, 창비

김진숙, 2007, 소금꽃나무, 후마니타스

신순애, 2014, 열세살 여공의 삶, 한겨레출판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9기 학생 연락처

이름	소속	직위	이메일	연락처(HP)
김미경	(사)탁틴내일	사무처장	kmkstar87@naver.com	010-9908-2190
김수정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동작성문화센터	센터장	padosj67@hanmail.net	010-5742-9497
김은지	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	eunjui2@naver.com	010-6613-1174
백향숙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 본부 미디어교육 교육강사	psh99up@hanmail.net	010-9111-0138
원선아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사무국장	findreamw@gmail.com	010-6278-6143
윤나현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사무국장	freefish36@hanmail.net	010-2898-6150
정경숙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jks-67@hanmail.net	010-3115-8327
정유선	강원여성연대	공동대표	bomnalsunny@naver.com	010-8639-8236
정지영	양주여성회	대표	candyth@hanmail.net	010-4320-5357
조은영	구리여성회	대표	beloved93@hanmail.net	010-2221-3538
최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gurumoon@naver.com	010-7465-9871
최리주	인천여성민우회	운영위원	reejoo67@naver.com	010-9591-5700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여성운동단체 연대체로서 각 단체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민주·평등·평화를 핵심가치로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여성연합은 평등과 평화·소통과 연대·돌봄과 나눔의 대안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주요 활동

- 여성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인식·제도 개선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성차별 없는 여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식·제도 개선
 -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보육, 교육, 의료, 일자리, 주거 등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통한 노인 돌봄의 질 개선
 -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 요구

-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이 확대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사회 전 영역의 성주류화를 위한 활동
 - 여성 정치인·법조인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기업·공직사회의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참여 확대

- 장애인, 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전쟁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통일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지속적인 남북여성교류와 지원
 - 통일 실현에 여성의 참여와 역할 확대
 - 평화문화의 확산 노력

-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 여성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 여성운동 아카데미, 정책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가 교육 진행
- 국내외 다양한 단체들과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다양한 국내 연대
 - 동아시아여성포럼, CATW 아시아-태평양 회의, APWLD,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참관 및 참석 등 국제 연대

- 풀뿌리 지역에서 돌봄과 나눔이 살아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 풀뿌리 여성운동가대회 공동주최

- 1985년부터 매년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여성대회를 주관, 성평등 의제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지부와 회원단체

- 7개 지부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 30개 회원단체 -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 후원하기

여성연합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여성연합의 활동과 운영은 후원회원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064-131858-13-108
/ 하나은행 388-810014-74905
- 여성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 주소와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

T. 02-313-1632~3 F. 02-313-1649 E. kwau@women21.or.kr

H. www.women21.or.kr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며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평등 문화 지원

이 땅의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여성NGO와 활동가 역량강화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소셜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소외계층여성 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돌봄공동체 구축

미래 세대와 함께 대안적 경제·생활·문화 공동체 활동을 발굴 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기부참여

- 국민 079-01-0405-971 농협 369-17-005283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후원하기'

■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 02-336-6364 F. 02-336-6459 E. womenfund@womenfund.or.kr

